

놓치지 마세요! 선상가공업 신고

선상가공업이란?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하여 냉동하거나 냉장하는 사업

선상가공업에 해당하는 선박은 반드시
조업 전 **선상가공업 신고**를 해야합니다!

중요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는 변경사항 발생 후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합니다!

* 대표자, 선박의 명칭, 선적항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신고해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지원



원양 산업

제 1180 호
(2025년 4월 15일 발간)

창간: 1972년 8월 1일

등록일자: 1981년 8월 27일

등록번호: 라-9183호 / 월간발행(비매품)

Contents



협회소식

- 제15회 수산인의 날 참석 / 4
- 2025년 원양어업 통계조사 실시 / 4
- 협회, NPFC 제9차 연례회의 참석 / 5
- 포클랜드, 우리 원양 채낚기선 완벽한 관리에 호평 / 6
- 협회, IUU어업 예방 등을 위한 선사 방문교육 실시 / 7
- 감천항 이해관계업체 대상 항만보안 간담회 참석 / 8
- 협회, 선박직원법 개정 관련 국회 방문 협의 / 8
- 지속가능한 수산물 소비 시대 / 9



명예해양수산물 리포트

- 명예해양수산물 리포트 / 11



이달의 요리

- 이빨고기 칠리 파스타 / 16



해외수산물정보

- 국제유가 동향
 - 4월 싱가포르 MGO 가격, 평균 675달러 / 17
- 참치어업 동향
 - 통조림 업계, 美 관세로 인한 공급망 혼란 우려 / 18

- 美 관세로 아시아 혼란, 중남미, 아프리카 수혜 예상 / 20
- ISSF “세계 참치 자원 중 87%가 건강 수준” / 23
- FAO “참치 가공품 무역, 2024년 동안 증가” / 24
- 日 냉동 눈다랑어 수입량, 대기선 문제 해소로 급증 / 25
- 日 2025년 2월 냉동 다랑어류 수입 통계 발표 / 26
- 중서부태평양 2월 어획량, 전월 대비 10% 감소 / 27
- 인도네시아, IOTC 황다랑어 자원 계획 반대 철회 / 27
- 태국 2024년 통조림 해외 수출, 32% 증가 / 28
- 아프리카, 2024년 태국산 통조림 수입 회복 / 29
- 인도네시아 선원, ‘인권침해 어선’ 조달 범블비에 소송 / 30
- 日 미쓰비시상사 “참치 등 조달 시 인권 문제 중점” / 31
- 대서양 FAD 금어기, 3월 17일부터 발효 / 32
- 美 정부 인력 감축, RFMO 참여와 엘니뇨 예보에 영향 / 33
- 美 2월 참치 통조림 소비자가격지수 0.1% 하락 / 34
- 美사모아, 자국 산업에서 스타키스트의 역할 지지 / 35
- 베트남의 영국 참치 수출 성장세 / 36
- PNG “신선 참치 일본 직접 수출 증대 원해” / 37
- 베트남 참치, 원어 부족과 수출 규제로 난관 직면 / 37

■ 오징어어업 동향

- 포클랜드 로리고오징어 어업, 긍정적 추세 / 38
- 포클랜드 오징어 조업, 좋은 시작 / 39
- 아르헨 지방정부, IUU 의혹 中 원양선사와 협약 체결 / 40
- 남미산 냉동 살오징어류, 수요 증가로 고가 추세 / 41

원양산업 발 행 2025년 4월 15일
 제1180호 등록일자 1981년 8월 27일
 등록번호 라-9183호
 발행처 특수법인 **한국원양산업협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6층
 (양재동, 삼호물산A빌딩)
 발행인 **김 영 규**
 편집인

Contents

- 페루, 새로운 오징어 어업 규정 도입 /42
- 트럼프, 폴란드에 41% 관세 /43

■ 명태어업 동향

- 세계 흰살생선 어획량·공급량 감소 추세 /44
- 3월 17일까지 40만 톤 러시아 항구로 운송 /44
- 美 원료 사용 아시아산 명태 필렛, 관세 혼란 확대 /45
- 러, 3월 16일까지 명태 74만 2천 톤 어획 /46
- 오토츠크 명태 어업 긍정적으로 변화 /47
- 러 2026년 TAC, 365만 톤으로 늘릴 예정 /47
- 한국, 2월 냉동 명태 수입량 감소 /48
- 美 명태 연육 2025년 A시즌 가격 상승 전망 /49
- 러 어업 2024년 일본행 명태 연육 수출, 46% 증가/49
- 中 맥도날드, 러시아산 명태 수요 증가 /50
- 러 2025년 명태 고차 가공 제품 생산량 17% 증가/50
- 태평양 대구 가격, 비용 상승과 수요 증가로 상승 지속/51
- 러, 수산업 100척 이상의 현대식 선박 건조 계획 /52
- 러, 투자 쿼터 사용 기간 20년으로 연장 진행 /53
- 러시아, 벨라루스에 10년간 어획 권한 제공 /53
- 러시아, 중국에 명란 공급 두 배 증가 예정 /54
- 전문가, 냉동 명태 원가 계산 /54
- 러 중형 트롤 어선 출항 착수 /55
- 러, 양식 어류 생산량 증가 /55
- 러, 어업 국가 지원 기준에 대한 접근 방식 개발 /56
- 러, 연해주 어항의 어획물 회전율 36% 증가 /56
- 러 관계자 “소련의 낮은 생선 가격, 정부 지원이 원인” /57

■ 공치어업 동향

- NPFC, 공치 TAC 10% 감축 및 고등어 30% 감축 /58
- NPFC, 실질적인 전채 개혁 채택 /59

■ 각국 수산 동향

- 베트남 수산물 업계, 미국 관세에 대비 /60
- 그린피스, 美 송유관 반대 시위 관련 소송서 패소/61
- 2024년 수산물 어획, 양식, 소비량 /61
- 한국, 노르웨이의 주요 수산물 시장으로 부상 /62
- 러·일, 일본 어민을 위한 연어 쿼터에 합의 /62
- 유럽의회, 기니비사우와 새 어업 협정 승인 /63
- 中 대형 남극크릴선 출항 /64
- 영국과 페로 제도, 어류 쿼터 교환 /64
- 日 마루하니치로, 사명 ‘우미오스’로 변경 /65
- 아시아에서 노르웨이 고등어 가격 상승 /65
- 캐나다 WTO 무역 분쟁 제기 /66
- 중국 바닷가재 시장 현황 /66
- 美, 초밥 어종 허위 표기 논란 /67
- 트럼프의 관세가 연어 생산에 미치는 영향 /68
- 페루 남부, 10년 만에 가장 성공적인 어획 달성 /68

쉬어가는 난

- 오징어의 꿈 양주현 /69

국내 수산 정보

- 3월 오징어 국내 동향 /70
- 3월 명태 국내 동향 /72
- 발밑에서 차오른 대서양 바닷물에 북극해빙 녹아 /74
- 日, 고등어 쿼터 감축 검토 /74
- 원격의료, 원양 선원의 안전한 항해 도와 /75
- 정부, 북태평양·베링해 출어 원양어선 안전 살펴 /75
- K푸드 글로벌 장기흥행 전략 /76
- 러 명태 쿼터 23만 톤 증가 /77
- 日, 2025년 오징어 쿼터 76% 감소 /77
- 신통상규범 확대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 필요 /78
- 대체 식품으로 부상하는 곤충산업 /78

제15회 수산인의 날 참석

기후변화 등 극복 화두

해양수산부는 4월 1일 전북 고창군 군립체육관에서 ‘바다에서 희망을, 수산에서 미래를’을 주제로, ‘제14회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심덕섭 고창군수,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노동진 회장과 전국 각지의 수산인 등 1,5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우리 협회에서는 김영규 협회장 등이 참석하였다.

기념식장 외부에 마련된 정책홍보 부스에는 수산물 특별전시관, 수산물 시식 및 홍보부스 등이 운영되었다. 아울러 기념식에서는 수산업 및 어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식도 이루어졌다.

강도형 장관은 “수산인의 날 기념식을 통해 대내외

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산 식품 수출 30억 달러를 달성한 우리 수산인의 땀방울이 국민에게 알려지기를 바란다”라며 “정부도 수산 가족 여러분과 함께 바다에서 희망을, 수산에서 미래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하였다.



2025년 원양어업 통계조사 실시

조사결과 '25년 8월 이후 공표

한국원양산업협회 해외수산협력센터는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4월 14일부터 5월 9일까지 국내외 원양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2025년 원양어업 통계조사를 실시한다.

원양어업 통계조사는 2011년, ‘원양어업 총조사’라는 명칭으로 처음 실시됐으며 2012년 『통계법』상 국가승인통계로 통계청의 승인을 받은 후 매년 실시되고 있다.

주요 조사내용은 원양업체 생산·수출 및 경영실

태 등이며 방문 조사와 이메일 조사를 병행한다.

해외수산협력센터 이상묵 센터장은 “통계조사와 관련된 사항은 통계법에 따라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므로 원양어업 정책, 연구 및 경영전략 수립의 기초자료가 되는 원양어업 통계조사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였다.

조사결과는 2025년 8월 이후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해양수산부,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 등에 공표될 예정이다.

협회, NPFC 제9차 연례회의 참석

보존관리조치 제·개정 등 논의



우리 협회는 지난 3월 24일부터 27일까지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된 NPFC 제9차 연례회의와 함께, 이에 앞서 3월 18일부터 21일까지 개최된 제8차 이행위원회에 참석하였다.

이번 연례회의에는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김정례 주무관, 원양산업과 정윤석 사무관, 국립수산물학원 송혜진 연구사(비대면), 조업감시센터 김태린 주무관, 해외수산협력센터 양재결 전문관, 이승은 전문관(이상 비대면) 등이 참석하였다. 우리 협회에서는 해외협력2부 진호정 부장(비대면), 최상진 주임이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풍치 보존관리조치 개정안이 논의

되었고, 그 결과 2025년 TAC는 전년도 대비 10% 감축된 총 20만 2,500톤(공해 12만 1,500톤)으로 합의되었다. 우리나라 풍치 TAC는 2018년 어획량 대비 55% 감축된 9,342톤의 90%인 8,408톤으로 정해졌다.

이외에 연례회의에서는 ▽풍치 TAC 설정 및 어획량 관련 규정 논의 ▽참고등어·정어리 어획한도 감축 관련 논의 ▽저층어업 금지구역 신규 지정, VME 분류군 명칭 번역표 추가 ▽NPFC 전채 옵서버 프로그램 마련 논의 ▽온라인 전채 보고 시스템 사용 의무화('26.1.1 일부) 제안 ▽항만국조치 최소기준 보존관리조치 신설 제안 ▽데이터 최소기준 신설 제안 및 VMS, 기타 보존관리조치 논의 등이 이루어졌다.

포클랜드, 우리 원양 채낚기선 완벽한 관리에 호평

2025년도 입어 안전 검사 및 훈련에서 우수한 결과 도출



포클랜드 수산청장이 우리나라 원양어선의 완벽한 관리 및 기준 준수에 호평을 보냈다.

지난 1월 22일 포클랜드수산청 신임 수산청장은 포클랜드 스탠리항에 입항한 아그네스수산 소속 오징어채낚기선 ‘아그네스 103호(1974년 2월 15일 진수)’에 승선하여 수산청 관계자와 안전 검사 및 훈련 진행상황을 참관하였다.

이날 ‘아그네스 103호’의 최한철 선장과 선원은 안전 검사 및 훈련, 선내 청결 상태 등을 철저히 준비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하였다.

참관한 포클랜드 수산청장은 ‘아그네스 103호’가 노후선임에도 불구하고 포클랜드 수역 입어를 위한 세세한 기준을 잘 준수하고 있다는 점에 감사를 표하였다.

현지 입어 대방사인 드래곤사 대표 또한 ‘아그네스 103호’가 선령 50년이 넘는 선박임에도 완벽한 상태로 관리되어 신임 수산청장에게 좋은 이미지를 제공한 것에 대하여 아그네스수산과 최 선장 측에 감사를 표하였다. 아울러 대표는 이러한 모범 사례를 널리 알려 한국의 다른 선박도 포클랜드제도의 허가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아그네스수산은 지난 2021년에도 소속 어선인 ‘아그네스 108호’에 대한 허가 검사 당시 참관한 포클랜드 전임 수산청장에게 “노후선이라도 관리를 잘한다면 2020년부터 실시해 온 포클랜드 항만청의 항만국통제(PSC)에 대비한 안전기준에 충분히 부합할 수 있다”라는 호평과 함께 선사와 선원의 노력에 대해 감사를 받은 바 있다.

협회, IUU어업 예방 등을 위한 선사 방문교육 실시 선사 방문하여 각종 유의사항 및 가이드라인 등 설명



우리 협회는 지난 3월 19일과 20일 동안 참치연승 선사를 방문하여 IUU어업 예방 등을 위해 주의 또는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방문교육은 19일에 에스앤비인터네셔널과 해천물산, 20일에 쓰리티오션, 남궁튜나, 경양수산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교육 일정에 선사 측에서는 경양수산 이학송 부장, 남궁튜나 박혁진 전무 외 1명, 에스앤비인터네셔널 하양천 본부장 외 2명, 쓰리티오션 김성수

상무 외 1명, 해천물산 김익상 부장 외 1명이 참석하였다. 우리 협회에서는 해외협력1부 최봉준 과장 외 1명이 교육을 진행하였다.

교육에서는 △연안국 EEZ 경계선 침범 유의 및 준법조업 안내 △외국인 선원 인권 관련 준수사항 설명 △부수어획 보고 및 기록, 취급 방류 가이드라인 안내 △오피서버 관련 사항 등이 진행되었고, 아울러 선사 측의 각종 질의 및 문의에 대한 응답 및 후속조치 등이 이루어졌다.

감천항 이해관계업체 대상 항만보안 간담회 참석

항만 보안정책 관련 원양업계 건의사항 전달

우리 협회는 지난 3월 26일 부산항만공사 감천사업소에서 진행된 '감천항 이해관계업체 대상 항만보안 간담회'에 참석하였다.

이번 간담회의 목적은 부두 접안 시 출입국관리법 제73조(운수업자 등의 일반적 의무 등)제5호에 따라 사설 감시원을 배치토록 하는 사안과 관련하여, 업계의 부담 내용을 공유하고, 부담 최소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번 회의에는 부산항만공사 감천사업소 소장 외 2인, 부산항만공사 종합상황실 실장 외 2인이 참석하였다. 협회에서는 이성재 경영지원본부장, 이형균 부산지부장, 회원지원부 소기동 부장이 참석하였다.

우리 협회 측은 감천항 이용 시 사설 감시원 배치로

매년 15억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선원 이탈이 발생하면 선사가 법적 책임을 지는 이중고가 발생함을 호소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협회 측은 항만공사 측에 감시시스템을 보유한 선박에는 감시원 배치에 예외를 두거나, 이탈 위험이 낮은 주간에는 사설 경비 인원을 줄이는 등 유연한 관리 방식의 도입과 함께, 부두 이용자인 원양선사가 납득할 만한 요주의 선박 지정(해제) 기준을 건의하였다.

우리 협회 측은 해당 사안과 관련한 추가적 조치의 하나로, 4월 2일 부산해양수산청을 방문하여 김홍원 항만물류과장과 함께 감시원 배치 완화 건의 및 기타 방안 등을 협의하였다.

협회, 선박직원법 개정 관련 국회 방문 협의

조경태 의원실 방문하여 경과 설명 및 협조 요청

우리 협회는 외국인 해기사의 승선을 허가하는 선박직원법 일부개정안과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국회의원을 지난 3월 20일 방문하였다.

이날 협의에 조경태 의원실 측에서는 이준규 선임비서관, 김영우 비서관이 참석하였고, 우리 협회 측에서는 이성재 경영지원본부장, 회원지원부 소기동 부장이 참석하였다.

이번 협의는 조경태 의원실 선임비서관 신규 선임으로 인한 법안 개정 관련 경과사항 설명 및 협조

요청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153)은 국제협약에 가입한 다른 국가의 해기사 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 해당 외국인을 국내 원양어선의 직원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양업계의 인력난을 해소하여 원양어업의 발전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발의되었으며,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심사 과정을 거치고 있다.

지속가능한 수산물 소비 시대

유엔이 주목하는 지속가능한 식량, 수산물

2021년 개최된 유엔 푸드시스템 정상회의(UN Food System Summit)에서 유엔은 바다가 지구 표면의 70%를 차지하고 있지만 현재 바다로부터 생산되는 식량은 5%에 불과하므로 어업과 양식업이 식량 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적 요소임을 발표하였다. 전 세계 30억 명 이상이 수산물을 통하여 단백질을 비롯한 필수 영양소를 섭취하고 있고 약 6억 명이 수산업에 생계를 의존하고 있다. 또한 수산물의 연간 국제 무역액은 1,510억 달러로 추정되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식품 중 하나가 바로 수산물이다.

유엔이 발표한 '2024년 세계 인구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는 2080년에 약 100억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기후 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안정적인 식량 확보가 어려워졌고 수억 명의 사람들이 기아와 영양실조를 겪는 현실에 처해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래 식량 수요를 안정적으로 충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유엔과 주요 과학자들은 각국 정부에 수산물을 식품 정책의 중심으로 삼을 것을 강조하며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된 수산물에 주목하였다. 수산물 고갈을 방지하고 해양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하는 지속가능 어업 국제표준을 제정하는 MSC(해양관리협회)는 이러한 국제 정세의 중심에 있다.

MSC가 설립된 배경은 1992년 북해 대구어장의 고갈에 있다. 대구는 유럽에서 주식으로 먹는 피쉬앤칩스의 재료로 사용되는 생선이다. 당시 유럽 시민사회에서는 싼값에 공급되던 대구가 불법어업과 남획의 산물이라는 것에 분노한 사태가 발생하였다. 남획으로 대구가 고갈되자 대구 어업인 외에 대구를 기반으로 생성된 산업과 연계된 모든 사람의 생계가 무너지며 대구산업이 붕괴 위기에 처하였고, 대구를 즐겨 먹던 소비자도 더 이상 대구를 먹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는 남획을 주도한 어업과 이들에게서 구매한 대구를 판매한 유통사를 대상으로 보이콧을 외치며 대구 자원 살리기에 앞장섰다. 이와 같은 대구 사태로 수산물 고갈 문제가 전 세계에 대두되었고 MSC가 설립되었다.

MSC 프로그램은 소비자가 지속가능한 수산물을 선택함으로써 건강한 바다와 수산자원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활성화되도록, 시장 기반으로 운영되며, 인증 제품을 구매하여 그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자발적으로 MSC 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어업이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를 지향한다. 하지만 MSC 인증 취득에는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되며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 환경영향 최소화, 효과적인 어업 관리 등의 3개 원칙 아래 25개의 세부 평가 항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2019년에 다랑어어업에 인증을 취득한 동원산업은 3년의 노력 끝에 취득하였고, 최근 대해수산과 사조그룹도 1년 6개월간의 심사 끝에 인증을 취득하였다. MSC 인증은 독립된 제삼자 인증 기관에서 심사한다. 이는 심사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위한 장치로 우리나라에는 세 개의 인증 기관이 MSC 인증을 심사한다. 또한 인증 취득 이후에는 인증이 유효한 5년 동안 어업 방식 및 관리시스템의 개선 사항 보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야 한다.

MSC 인증 어업으로 생산되는 어획량은 전 세계 어획량의 19.3%로 매년 참여하는 어업과 회사는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연근해어업은 아직 MSC 인증을 취득한 사례는 없지만 원양어업에서는 다랑어, 이빨고

기, 크릴 조업에 MSC 인증을 취득하였다.

세계 시장에서는 지속가능성이 인증된 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유럽과 북미의 대형 유통업체는 이러한 인증 제품을 우선하여 취급하며 일부 국가에서는 미인증 제품의 수입을 제한하기도 한다. 이에 한국수산회는 국내 기업의 MSC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줄이고 인증 과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한국원양산업협회와 국립수산물과학원 등에서는 MSC 인증 취득을 위해 필요한 어업 관계자와의 소통 창구 마련 및 과학적 데이터 공유에 적극 협조하는 등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 출처: 수산양식(3월호), 2025년 3월 1일자

원양산업 정보 및 광고 접수 안내

더욱 알차고 참신한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원양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나 각종 원고를 접수합니다. 또한 원양산업지에 광고(B5 규격, 컬러 및 흑백)를 희망하시는 경우 아래 메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유료). 송부해 주시는 내용은 검토 후 원양산업지를 알차게 꾸미는 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주 소: 서울 서초구 논현로 83, 6층(양재동, 삼호물산A빌딩)
한국원양산업협회 기획홍보부(우편번호: 06775)
- 팩스: 02-589-1630/1631 ○ 메일: kosfa@kosfa.org



명예해양수산물 리포트

김점봉 세네갈 명예해양수산물관



김점봉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어가 동향

어종	규격	가격(\$/톤)
황다랑어	10kg 초과	1,765
	3.4~10kg	1,665
	1.8~3.4kg	1,565
	1.5~1.8kg	1,415
	1.5kg 미만	1,215
눈다랑어	10kg 초과	1,415
	3.4~10kg	1,415
	1.8~3.4kg	1,415
	1.5~1.8kg	1,265
	1.5kg 미만	1,065
가다랑어	3.4kg 초과	1,615
	1.8~3.4kg	1,565
	1.5~1.8kg	1,415
	1.5kg 미만	1,215

나. 유가 동향

공급	유종	가격(유로/톤)	조사일
다카르항	MGO	575	'25.3.26

김종태 피지 명예해양수산물관



김종태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피지 정부, 어업의 역할 강조

- 피지 정부는 대미 수출품 관세 32%에 대한 인하를 목표로 미국과 회담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피지는 미국산 제품에 평균 1.8%의 현저히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정부는 무역 불균형 해소와 경제 관계를 강화하고자 노력 중이다.

나. 세금 투명성 확보 위해 노력

- 피지는 세금 투명성 문제로 EU의 블랙리스트 등재된 내용을 해결하기 위하여 세무 정보 교환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피지 정부는 국제 조세 규범 준수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 중이다.

다. 관광산업 동향

- 피지의 올해 관광 방문객은 호주와 뉴질랜드 방문객 감소로 지난해보다 3.8% 감소하였다. 피지 국내 소비와 투자 활동은 안정적이며, 물가상승률은 1.4%로 하락하였다.
- 피지와 중국 간 직항편 도입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직항편이 도입되면, 중국의 관광객 유입 증가와 양국 간 경제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라. 어가 동향

어종	규격	가격(\$/톤)	비고
날개다랑어	10kg 상	2,300	로인가공용(PAFCCO)

마. 유가 동향

공급	유종	가격(\$/톤)	조사일
Total	MGO	1,354	'25.4.10

박상천 인도네시아 명예해양수산물관



박상천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양식 어류 품질 인증 제도 운영

◦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는 양식 어류의 품질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양식 어류 품질 인증 제도(CPIB)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통하여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어류 종자 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나. 정부, 어류 공급 안정화 점검

◦ 정부는 라마단 기간 어류 공급 안정화를 위하여 어민들과 현장 점검 및 지원 활동 등 어류 가격 안정 및 공급 차질 방지를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정부는 어민의 자립 역량 강화와 지속 가능한 어업 관리도 지속하겠다고 알렸다.

다. 정부, 라마단 기간 어류 단백질 패키지 공급

◦ 정부는 3월 17일부터 라마단을 맞이하여 전국 여러 지역의 불우이웃에게 통조림 및 가공 제품 등 어류

단백질 패키지를 전달하였다.

◦ 올해 라마단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지속되었으며 이 기간의 낮 동안 음식과 물의 금식이 지속된다. 하지만 저녁이 되면 금식이 풀리고 새벽까지 식사가 가능하며, 이 기간의 식품 소비량은 일 년 중 가장 높다.

라. 유가 동향

공급	유종	가격(\$/kl)	조사일
Pertamina	MDF	990	'25.4.7

오시영 사모아 명예해양수산물관



오시영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어장 동향

◦ 아메리칸 사모아 및 연근해 쿡 아일랜드 어장에서 날개다랑어를 일일 평균 0.5~1톤, 황다랑어와 눈다랑어를 평균 0.2~0.5톤을 어획하여 전월과 유사한 어획률을 기록하였다.

나. 연방 자금 확대 요청 및 관리종 축소 요청

◦ 지난 3월 31일 서태평양지역어업관리위원회(WPR)는 예산이 삭감된 미국 상무부에 태평양 도서 지역 어업관리 및 인재 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 자금 확대를 긴급 요청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저층어류 관리종을 13종에서 6종으로 축소하고 제외된 7종은 모니터링은 하되 연간 어획 한도를 적용하지 않도록 권고하였다.



다. KBS 원양어업 다큐멘터리 촬영

◦ 지난 4월 1일~4일간 KBS 부산 방송국 촬영팀이 한국 원양어업의 역사와 기여 인물을 조명하는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하여 아메리칸 사모아에 방문하여 촬영하였다. 촬영 내용에는 사모아 어장 개척, 제21지 남호 침몰 사건, 선원 묘지, 스타키스트 참치공장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촬영된 내용은 편집 후 빠르면 5월에 방송 예정이다.

생산량을 증대할 계획이다.

나. 뉴지, 취약한 해양 생태 보호 미 동참

◦ 뉴질랜드 정부는 최근 칠레에서 개최된 SPRFMO 연례회의에서 호주와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저층트롤 어업 금지를 반대하며 SPRFMO 탈퇴 가능성까지 시사하였다. 이에 해당 제안은 내년 재검토로 연기되었고, 환경 단체는 과학적 권고를 무시하고 해양 생태계를 위협한다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라. 어가 동향

어종	규격	가격(\$/톤)
황다랑어	라운드	1,750
눈다랑어	라운드	1,550
가다랑어	라운드	1,550

다. 어가 동향

어종	규격	가격(\$/톤)
오징어	2L	6,450
	L	6,200
	M	5,850
	2M	5,400
검정통삼치	2L	2,150
	L	2,150
	M	2,050

마. 유가 동향

공급	유종	가격(\$/gal)	조사일
클리퍼오일	디젤	2.97	'25.4.8

라. 유가 동향

공급	유종	가격(\$/톤)	조사일
터니든	MGO	931	'25.4.1

윤정환 뉴질랜드 명예해양수산관



윤정환
명예해양수산관

가. 정부, 양식산업 성장 추진

◦ 뉴질랜드 정부는 양식산업을 연간 30억 달러 규모로 성장을 목표로 한다. 현재 양식업은 연간 7억 6천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3천명 이상의 뉴질랜드인을 고용하고 있다.

◦ 뉴질랜드 정부는 이 목표 달성을 위하여 기존 해양 농장 활용을 극대화하고 개방해양 양식을 통하여

이동춘 모리셔스 명예해양수산관



이동춘
명예해양수산관

가. AfDB 간 농수산업 협력 논의

◦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대표단은 모리셔스 아르빈 부를 농림수산장



관을 만나 모리셔스 항구의 전략적 역할, 수산 기술 향상, 민간 투자의 중요성 등 블루이코노미와 농업 부분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나. 일본 10억 규모의 예인선 제공

- 일본 정부는 경제사회개발 프로그램을 통하여 모리셔스에 10억 엔 규모의 예인선을 제공하였다. 이에 모리셔스는 항만 업무와 해양 재난 대응에 이바지하며 앞으로도 양국 간의 협력을 확대키로 하였다.

다. 유가 동향

공급	유종	가격(\$/톤)	조사일
Shell	MGO	835	'25.4.9

이상우 아르헨티나 명예해양수산물관



이상우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오징어 어업 동향

-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는 어업협정을 통하여 올해 4월 1일부터 공동 어업구역에서 일렉스 오징어 조업 시작을 승인하였다.
- 아르헨티나는 지속가능한 어업을 보장하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획량이 증가함에 따라 북위 44°S 이북의 국가 수역에서 오징어 어획을 승인하였다.
- 올해 1~3월까지 아르헨티나는 73척의 채낚기어선이 6만 9,028톤의 일렉스 오징어를 어획하였다. 2월 말부터 어획량 감소로 조업선의 어장 이동이 증가하였다. 참고로 일일 평균 어획량은 1월 28톤에서 3월 20톤을 기록하며 감소하였다.
- 오징어 수출량은 지난해 대비 16% 증가하였고, 평균

가격은 10.4% 증가하여 톤당 2,682 달러를 유지하였다.

나. 유가 동향

공급	유종	가격(\$/L)	조사일
Epsol YPF	MGO	1,370	'25.3.9

이윤홍 가나 명예해양수산물관



이윤홍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해적, 중국 선원 3명 납치

- 지난 3월 28일 오후 5시 53분경 무장한 해적이 중국 트롤어선을 습격하여 3시간 동안 선원을 위협한 후, 귀중품, 선용품과 중국 선원 3명을 납치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가나 해양 경찰과 해군은 인근 국가에 동내용을 알리고 해적 추적 및 선원 귀환을 위한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나. 영세 어민 금어기 면제

- Emelia Arthur 수산부 장관은 영세한 카누 어부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하여 올해 한하여 금어기를 면제키로 하였다. 장관은 금어기 동안 정부가 구호 식량을 보급하였지만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금어기 종료 후 어업 압력 급증으로 금어기의 생태적 이점이 사라짐에 따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리 조치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 어가 동향

어종	규격	가격(\$/톤)
황다랑어	10kg 초과	2,250
	10kg 이하	1,800
가다랑어	3.4kg 초과	1,500
	1.8~3.4kg	1,450
	1.5~1.8kg	1,300
	1.5kg 미만	1,150

- 동 사업을 통하여 중국인이 조업선 진출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산청도 중점 추진하는 사업이나 지역 주민의 상황을 고려치 않아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다. 유가 동향

공급	유종	가격(\$/kl)	조사일
TWL Logistics	디젤	799	'25.4.8

라. 유가 동향

공급	유종	가격(\$/kl)	조사일
Goil	MGO	830	'25.3.31

〈 게재 순서: 명예해양수산물 성명 가나다순 〉

정승화 파푸아뉴기니 명예해양수산물



정승화
명예해양수산물

가. 수산업 어려움 지속

- PNG에서 생산되어 수출되는 대표적인 수산물인 새우는 일본의 경기 침체 및 환율 상승으로 수출이 급감하였고, 중국에서 고가로 매입하던 바닷가재도 중국이 수입을 금지하여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불법 조업에 대한 정부의 관리가 미흡하여 PNG 수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나. 중국의 어업 투자

- 지난 4월 4일 PNG 수산부 장관 및 수산청 고위 관계자는 Milin Bay 주에서 중국 정부와 함께 투자 진행하고 있는 활어장을 방문하였다.



이빨고기 칠리 파스타



❖ 이렇게 준비하세요

- 재료: 파스타면 100g, 이빨고기 140g 1팩, 미나리 15줄, 스리라차 소스 1술, 올리브유 1술, 토마토 소스 10술, 후추 약간, 생강 맛술 1술, 복분자술 1술, 파슬리 가루 약간, 바닷가재 꼬리 110g, 모차렐라 치즈 50g, 청양고추, 올리브유 1술
- 소스: 생강 맛술 2술, 복분자술 1술, 후추, 파슬리

❖ 이렇게 만드세요

- ① 손질한 바닷가재에 모차렐라 치즈와 고추를 얹어 오븐에 20분간 구워준다.
- ② 이빨고기, 미나리를 먹기 좋게 손질 후 이빨고기를 특제 소스에 재워준다. 재워둔 이빨고기를 팬에 토마토 소스와 스리라차 소스를 넣어 볶아준다.
- ③ 파스타면을 약 7분간 삶은 후 이빨고기와 함께 비벼준다.
- ④ 미나리를 얹어 마무리한 파스타와 랍스터를 접시에 담아준다.



4월 싱가포르 MGO 가격, 평균 675달러

4월 14일 기준 600달러

4월 14일 기준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67.23달러, WTI 가격은 61.53달러, 브렌트유 가격은 64.88달러를 기록하였다.

4월 14일 기준 싱가포르 선박용 경유(MGO) 가격은 톤당 600달러로 3월 14일(645달러) 가격 대비 약 9% 하락하였다.

4월 평균(4.1~4.14) 가격은 617달러로 전월 평균 가격인 645달러 대비 약 2% 하락하였다. 전년 4월 평균보다 22% 하락하였고, 전전년 3월과 비교하면 16%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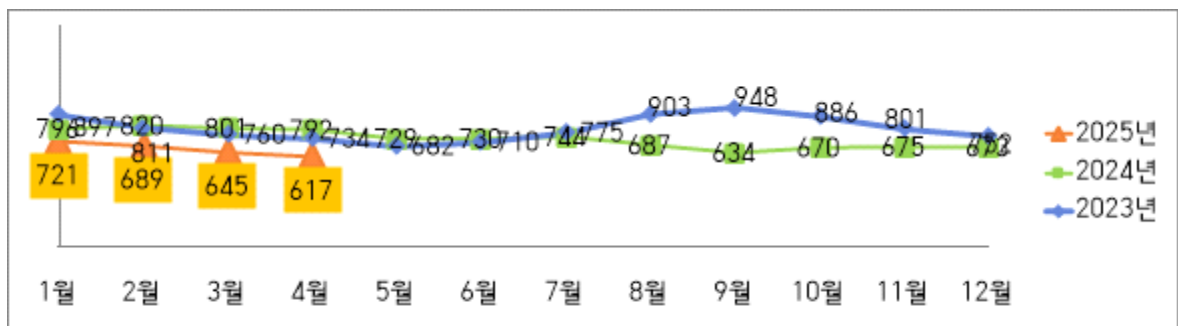
2025년 평균(1.2~4.14) 가격은 675달러로 전년(1.2~12.31) 평균 대비 7% 하락하였고, 전전년 평균 대비 16% 하락하였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4월 2일 국가별 상호관세율 발표로 인하여 세계 경기 침체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경기 침체로 인한 석유 수요 감소가 예상되면서 유가는 급락세를 보였다. 4월 9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외 국가에 상호관세 일시 유예를 발표하면서 하락세가 일시 진정되었으나, 중국의 보복 관세로 인하여 유가 하락세는 다시 지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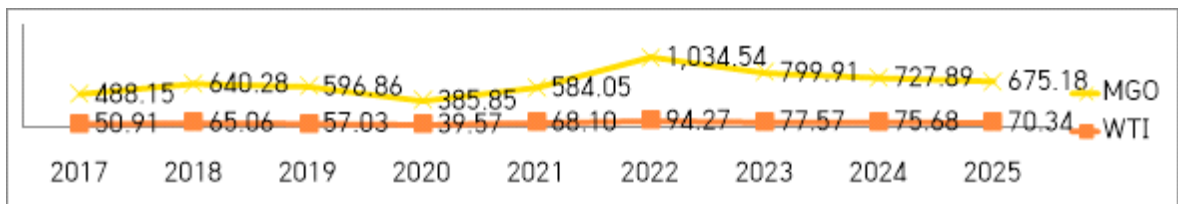
다만 4월 중순 중국이 미국산 원유의 대체로 캐나다산 수입을 확대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원유 수요 회복 조짐에 따라 유가가 일시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노선 및 무역갈등으로 인하여 위험 회피 심리가 확대된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다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존재한다.

〈 연도별 월별 싱가포르 MGO 평균 가격 〉



〈 연도별 MGO, WTI 평균 가격 〉





통조림 업계, 美 관세로 인한 공급망 혼란 우려

태국 및 베트남 타격, 에콰도르 미국행 수출 증대 예상

세계 시장은 여전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180개 이상의 국가에 대한 높은 상호관세율 발표에 충격을 받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새 관세 제도에 비판적 입장을 보이며 “대단히 파괴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상당수가 아시아에 위치한 참치 생산국들은 큰 충격을 받았는데, 태국과 베트남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에콰도르는 최소 관세를 적용받았는데, 이에 따라 국제 공급망에서 참치 통조림 및 로인 구매 지형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최대 참치 공급국인 태국은 36%의 관세를 적용받는다. 참치 통조림에 대한 기존 관세가 12.5%였음을 감안하면 막대한 상승이다. 태국 정부가 관세율을 낮추기 위한 협상을 하지 않는다면 타이유니온 그룹 등의 기업은 심각한 피해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타이유니온 매출(대부분이 상온보관 제품)의 40%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창출되었다. 타이유니온의 자회사는 Chicken of the Sea 브랜드를 생산한다.

지난 4월 3일, 태국 경제부총리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새 관세율로 인하여 태국의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감소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수출을 유지하기 위하여 태국 정부는 미국산 제품 수입 증대, 일부 미국 제품에 대한 관세 철폐, 비관세 장벽 완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태국 경제부총

리는 덧붙였다.

〈태국 가공업체의 반응〉

타이유니온 그룹 대변인은 타이유니온이 현재 운영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고 있으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선택지를 모색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대변인은 “타이유니온은 미국 조지아주 리옹에 있는 전용 공장을 포함하여 미국 시장(Chicken of the Sea 브랜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제조 네트워크를 운영한다. 미국 내 사업은 또한 여러 지역에 걸친 제조 역량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는 관세 인상의 영향을 부분적으로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대변인은 “상황은 여전히 변동성이 매우 크며, 이러한 관세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될지, 그리고 실제로 시행될지 여전히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타이유니온은 앞으로 며칠과 몇 주 안에 태국과 미국 관료 간 협상이 “관세 조치의 범위, 시기 또는 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예상하였다.

또 다른 주요 통조림 참치 생산업체 관계자는 아시아의 모든 참치 생산국이 미국 정부의 결정에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모두 같은 입장이라고 말하였다. “모든 국가가 미국과 협상하여 관세를 낮추려고 노력할 것이다. 아마도 앞으로 6~12개월 안에 그렇게



나올 것이다. 이 협상이 이번 상황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협상이 성공하지 못하고 높은 관세가 유지된다면, 가공업체들은 미국이 아닌 새로운 시장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관계자는 “구매자들은 새로운 공급원(관세가 낮은 국가나 면세 국가)을 찾을 것이다. 결국 미국 소비자들은 음식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를 볼 것이고 미국에서 참치 부문은 축소될 것이다.”라고 설명하였다.

Atuna는 베트남 수산물수출 생산자협회(VASEP)에 연락하였으나 기사 발행 시점까지 회신을 받지 못하였다고 밝혔다. 베트남은 미국으로의 통조림 참치와 자숙 로인 수출 시 무려 46%의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글로벌 공급망 구조의 변화?〉

태국과 베트남 등의 글로벌 가공업체 외에도, 스타키스트 산하의 아메리칸사모아 가공 공장 또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메리칸사모아 공장은 원어를 한국 및 대만 국적 선단으로부터 주로 수입하며, 미국 국적 선망선과 연승선으로부터도 일부 수입한다. 아메리칸사모아 당국은 엄격한 규제로 인하여 미국 선단에서 수입하는 원어가 부족하다고 수년간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대만산과 한국산 원어가 발표대로 각각 32%, 25%의 관세를 적용받을 경우, 스타키스트 공장은 참치 수급 시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이러한 관세가 앞으로도 유지된다면, 대만과 한국 선단은 아메리칸사모아 공장 공급을 위하여 미국 국적으

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

또 다른 주요 미국 참치 기업인 범블비(Bumble Bee)도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에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범블비의 샌디에이고 공장은 무관세가 적용되는 피지산 날개다랑어 로인을 공급받는다. 그러나 새 관세 조치가 시행되면 피지는 32%의 관세를 적용받으며, 이는 범블비의 주요 계획에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상된다.

범블비의 모기업인 FCF는 태국산이나 베트남산 로인의 높은 관세로 인하여, 날개다랑어 로인 공급을 에콰도르산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에콰도르산 로인은 기존에 0%의 관세를 적용받았으나 향후 10% 예정). 에콰도르는 기존에 1.1%의 관세를 적용받았던 태국산 로인과의 경쟁에 밀려 미국에 제한적인 수량만을 수출하였다. 그러나 향후 태국이 36%의 관세를 적용받는다면, 미국 구매자들은 가격 경쟁력이 있는 에콰도르산이나 콜롬비아산 로인 및 통조림 제품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에콰도르는 최대 시장인 EU 수출 시 원산지 조항으로 무관세를 적용받기 때문에, 미국 수출 증대는 에콰도르가 얼마나 많은 태국산 원어를 공급받는지의 관건이다.

에콰도르는 아시아 경쟁국이 받은 관세의 타격으로 인하여, 통조림과 파우치 부문에서도 수혜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관세 조치는 조달 측면에서 국제 참치 원어 공급망에 증대한 변화를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중서부태평양 참치 어획량의 대부분은 방콕 가공 허브로 향하지만, 일부 물량이 에콰도르로 이동할 수도 있다.

* 출처: Atuna, 2025년 4월 4일자



美 관세로 아시아 혼란, 중남미·아프리카 수혜 예상

1월 일간 가다랑어 어획량 6% 감소

미국이 4월 2일 발표한 새 관세 조치는 글로벌 참치 산업에 큰 파장을 낳았다. 아시아 수출국은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 가공국 및 중동이나 타 아시아 국가에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지닌 태국과 베트남은 갑작스러운 변화로 인하여 흔들리고 있다.

지난 4월 4일, 한 업계 관계자는 베트남산 구매자들이 매입을 전면 중단한 상태이며, 상황이 보다 명확히 정리되기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전하였다.

또 다른 소식통은 46%의 관세를 적용받게 된 베트남이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은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였다. 해당 소식통은 “베트남은 참치 통조림 공급국이지만, 미국의 주요 황다랑어 스테이크 공급국이기도 하다”라고 설명하였다.

관세 발표에 앞서 베트남 업계 단체인 VASEP은 “정치적 변동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우려를 촉발하고 있으며, 특히 공급과 가격에 중대한 변동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

베트남의 미국행 참치 수출은 지난 10년에 걸쳐 2배 이상으로 성장하였다. 이들의 2014년 미국행 수출액은 1억 7,500만 달러였으나 2024년에는 3억 8,800만 달러로 성장하였다고 VASEP은 밝혔다. VASEP은 “제품 측면에서 미국은 언제나 베트남산

참치 통조림과 참치육·로인 등의 최대 수입국이었다”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4일, SNS를 통하여 베트남과 협상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을 남겼다.

전통의 주요 참치 가공·수출 허브인 태국도 혼란 상태이다. 태국은 어획량 감소뿐만 아니라 이미 비용이 상승한 상태에서 관세 타격으로 인하여 가격 경쟁력이 위기에 처하였다는 이중고에 직면하였다.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일부 태국 기업은 물량의 일부를 관세가 낮은 필리핀이나 PNG로 선회하는 것을 고려 중이나, 소식통에 따르면 해당 국가들은 방콕 수준의 물량을 소화하기에는 가동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충격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아직까지 이에 반응하지 않은 상태이다. 한 소식통은 “아직은 이르다”라며, “모든 관계자가 앞으로 할 일을 분석하는 중이다. 관세를 예상한 사람도 있으나, 이러한 수준과 불균형은 모두가 예상치 못하였다”라고 말하였다.

또 다른 소식통은 “현재까지 가격 변동은 관측되지 않았다. 아직은 너무 이른 상황이며, 모두가 해야 할 일을 가늠하고 있다. 이번 관세 조치는 찬물을 끼얹은 것과 같다. 관세율이 너무 높고 불공정해서 모두가 무방비로 노출된 상황이다. 어업 및 선단의 수용량이 집중된 아시아와 유럽 국가에는 높은 관세



율이 적용되었으나, 중앙아메리카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공정하다”라며, “참치 업계의 전면적 변화에 직면할 수도 있다”라고 우려하였다.

한 유럽 가공업체 소식통은 새 관세 조치가 참치 부문에 있어 “지진”과도 같으나, 그 영향을 예측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다고 말하였다.

태국의 한 관계자는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 해당 관계자는 태국에 대한 36%의 관세가 “막대한 타격”이며, 태국 가공업체의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해당 관계자는 “당장 결정을 내리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앞으로 일어나는 상황에 따라 다음 행보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관계자는 무엇보다도 미국에서의 참치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시장이 적응을 거치면, 태국과 베트남 가공업체가 변동성이 큰 미국 시장 대신 유럽과 중동 시장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소식통은 “유럽은 추가적 대응책을 준비 중”이라는 우르줄라 폰테어라이엔 유럽위원회 집행위원장의 말을 인용하였다.

아시아와 유럽 생산국들이 새 관세로 인하여 타격을 입지만, 중앙아시아와 일부 아프리카 비교적 수혜를 얻게 되었다. 낮은 관세, 운임 절감, 지리적 이점 등으로 인하여 이 지역의 국가들은 갑작스레 전략적 이점을 얻게 되었다.

라틴 아메리카 상황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이번 관세는 판도를 뒤집을 수 있다”라며 “지난 수년간 라틴아메리카는 유럽을 주시하였으나 이제는 미국

이 주요 시장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아프리카 국가들도 공급망 전환 과정에서 수혜자가 될 수 있다. 오만 등 중동 국가 또는 파푸아뉴기니(PNG) 등도 관세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상황이다.

한 유럽 소식통은 유럽 가공업체들도 현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해당 소식통은 “아시아 국가들보다 관세 영향을 적게 받는 에콰도르와 페루, PNG, 필리핀 등이 미국에 참치를 수출하게 된다면, 유럽에 수출되는 무관세 적용 로인이나 통조림 제품의 양은 확연히 감소할 것이다”라며 우려하였다.

그러나 한 아시아 국가 관계자는 “PNG는 현실점에서 미국으로 전환할 만한 여력이 없다”라고 말하였다.

또 다른 소식통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에 가공공장을 보유한 유럽 통조림 가공업체가 미국 시장으로의 수출을 늘릴 수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한 참치 가공업체 임원은 관세 조치가 현 미국 행정부 임기인 4년 이내에 철폐될 수 있기 때문에 EU와의 관계 훼손을 감수하며 유럽에서 미국으로 시장을 전환하는 것은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해당 관계자는 상황이 불안정하지만, 장기적으로 많은 비용을 유발할 수 있는 급격한 변화가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현시점의 수혜자와 피해자〉

급변하는 참치 시장에서, 현 관세 조치 상황의 최대 수혜자는 아메리칸사모아에 통조림 공장을 보유한 동원산업 산하의 스타키스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



고 여러 미국 소식통은 말하였다.

여러 소식통에 따르면 스타키스트의 파우치 제품은 에콰도르와 세네갈에서 조달을 받기 때문에 전략적 이점이 될 수 있다. 스타키스트의 아시아 비중은 아시아에서 파우치 제품 지분이 비교적 큰 편인 미국 경쟁사 범블비와 치킨오브더시에 비하여 작은 편이다.

그와 반대로, 대만 기업인 FCF 산하의 미국 참치 브랜드 범블비와 타이유니온 산하의 치킨오브더시는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FCF는 미국 외 시장에서 원어, 자숙 로인, 통조림 등의 수출 시장을 찾기 위하여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소식통은 분석하였다.

베트남에서 주로 생산되는 대낙시 어획 날개다랑어 제품으로 알려진 미국 브랜드 와일드플래닛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영국 사업가 존 버튼이 소유한 해당 브랜드는 높은 관세로 인하여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소식통은 설명하였다.

유통 대기업 월마트는 참치 통조림 제품을 주로 태국에서 공급받기 때문에, 관세 및 비용 상승 등 변화의 영향을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소식통들은 상황이 변할 수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협상에 따라 일부 국가에 대한 관세 조치를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 참치

업계 임원은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윤곽이 확실하게 드러나기 전에 상황이 진정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장기적 영향을 예측하기에는 여전히 이른 상황이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미국 관세 조치로 인하여 글로벌 참치 무역에 전혀 없는 혼란이 초래되었다는 점에 모두 동의하였다.

네덜란드 은행 ‘라보뱅크’의 선임 분석가 Gorjan Nikolik은 4월 3일의 관세 발표를 최종 결정이 아닌 시작점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이 보복 관세로 대응하고 협상에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미국산 제품에 대한 34%의 관세 조치를 발표하며 대응하였다.

Nolik 분석가는 업계가 새 환경에 대한 적응을 모색하면서 새로운 ‘최적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하였다.

많은 것이 아시아 수출국의 대응 속도 및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생산국의 세계 참치 시장 수요 충족 속도에 달려 있다. 다른 국가들도 시장 지분을 차지하게 될 수도 있다.

2024년 미국의 최대 참치 공급국은 베트남, 태국, 멕시코, 모리셔스, 에콰도르 등이었다.

* 출처: Atuna, 2025년 4월 22일자 The Fishing Daily, 3월 31일자



ISSF “세계 참치 자원 중 87%가 건강 수준”

전년도 대비 1% 하락

국제수산물지속가능재단(이하, ISSF)에 따르면, 전 세계 참치 어획량의 87%가 ‘건강한’ 수준의 자원으로 부터 어획되었다. 이는 2024년 12월 대비 1% 하락한 수치이다. 이러한 내용은 ISSF가 연간 2회 공개하는 ‘자원 상태’ 보고서의 2025년 첫 번째 보고서를 통하여 발표되었다.

‘자원 상태’ 보고서는 여러 바다의 23개 참치 자원 및 혼획, 혼획 완화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ISSF는 지역수산물관리기구(RFMO) 최신 데이터를 종합하여 해당 문건을 작성하였다.

지난 12월의 보고서에서 가장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 자원은 인도양 황다랑어였다. 지난 2024년, 인도양참치위원회(이하, IOTC)는 인도양 황다랑어 자원이 회복되었으며, 더 이상 남획 상태가 아니라고 발표하였다. ISSF 보고서는 IOTC의 자원 평가 이후, 인도양 황다랑어의 ‘어업 사망률(자원이 남획 되는 정도) 수치가 ‘주황’ 등급에서 ‘녹색’ 등급으로 상향되었다고 지적하였다.

2018년 IOTC의 황다랑어 복원 계획이 발효된 이후, 어획량은 대체로 감소 추세였다. 그러나 IOTC 과학자들은 자원 평가의 데이터 불일치를 지적하였고, 어획 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참치 자원(가다랑어, 황다랑어, 눈다랑어, 북부 날개다랑어, 남부 날개다랑어)은 참치가 풍부한 태평양(중서부태평양, 동부태평양 모두 포함)에서 모두 건강한 상태였다. 태평양 참다랑어 자원의 ‘어업 사망률’ 수치가 ‘주황’ 등급에서 ‘녹색’ 등급으로 개선

되면서, 보존 및 관리 조치가 효과적이었음을 보여 주었다.

태평양참다랑어작업반(PBFWG)이 2024년 6월 자원 평가를 통하여 밝힌 내용에 따르면, 해당 자원의 번식 가용성은 기록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던 2010년 대비 10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러나 회의론자 측은 어린 참다랑어 개체의 수가 증가하였으나, 번식하기에는 여전히 너무 적은 수준이라고 지적하였다. ISSF는 이러한 지적을 반영하여 태평양 참다랑어 자원의 SSB(해당 자원의 번식 가용성 수치)를 ‘주황’ 등급으로 설정하였다.

대서양 눈다랑어 자원의 SSB 수치는 2024년 첫 번째 평가에서 ‘황색(건강하지 않음)’ 등급이었고, 이번에도 등급을 유지하였다. ‘어업 사망률’ 수치는 ‘녹색’ 등급을 유지하였다.

대서양-지중해 날개다랑어 자원은 개선이 필요함을 의미하는 ‘황색’ 등급을 유지하였다. 해당 자원의 최신 자원 평가는 2024년에 수행되었다. 어획량 감축 및 어업 규제(FAD 금지) 등 해당 자원에 대한 ICCAT의 관리 조치는 계속해서 집행되었다.

동대서양 및 지중해 참다랑어 자원은 ‘황색’ 등급에서 ‘녹색’ 등급으로 개선되었다. 남획되는 중인 인도양 눈다랑어 자원에는 강도 높은 관리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의 눈다랑어 어획량은 10만 5,900톤으로, 2022년 대비 17% 증가하였다.

* 출처: Atuna, 2025년 3월 14일자



FAO “참치 가공품 무역, 2024년 동안 증가”

전년도 대비 36% 증가

유엔식량농업기구(이하, FAO)에 따르면, 2024년 1~9월 동안 세계 참치 무역은 수입량 기준으로 전년도 대비 20% 증가하였다.

세계 시장에서 참치(통조림, 냉동, 냉장)의 수입량은 약 300만 톤이며, 수입액은 118억 6,000만 달러이다. 참치 어획량 증가 및 간편 참치 식품(주로 상온보관 제품)의 수요 증가로 인하여 2024년 하반기 동안 참치 무역은 활기를 띠었다. 아시아와 유럽 가공업체의 냉동 참치 원어 수입 및 냉동 자숙 로인 수입도 증가하였다. 고가 참치 제품 무역의 경우, 소비자 수요가 냉동 필렛 쪽으로 이동하였다고 FAO는 언급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공·통조림 참치 제품의 무역은 2024년 동안 회복하였다. 2024년 1~3분기 동안의 수입량은 117만 톤이며, 수입액 기준으로는 65억 달러이다. 이는 2023년 동기 대비 물량 기준으로 8.6%, 금액 기준으로 4.84% 증가한 수치이다. 유럽과 동남아시아에서 자숙로인 수요가 매우 강하였고, 이것이 최종 제품 물량 증가에 기여하였다고 FAO는 언급하였다.

가공·통조림 참치 제품의 최대 시장인 미국의 수입량은 16만 3,660톤으로, 전년도 동기 수치와 거의 비슷하였다. 2위 시장은 13만 3,900톤을 수입한 스페인으로, 이들의 수입량은 전년도 동기 대비 약 16% 증가하였다. 스페인은 유럽의 주요 생산국이자 EU 수

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가공·통조림 참치 제품 수요는 하락하였다. 반면 영국에서의 수입량은 10% 이상 증가한 7만 2,790톤이라는 주목할 만한 수준이었다.

세계 최대 참치 통조림 생산국인 태국의 2024년 1~9월 동안 가공·통조림 참치 제품 수출량은 42만 6,380톤으로, 전년도 동기 대비 31% 증가하였다. 태국은 북미, 유럽, 극동, 아시아-태평양의 40개가 넘는 국가에 제품을 수출한다.

에콰도르의 수출량은 22만 6,480톤으로, 전년도 대비 34%나 증가하였다. FAO 보고서에는 언급되지 않았으나, 에콰도르 선단의 2024년 가다랑어 어획량은 역대 최대 수준이며, 이것이 가공업체의 생산량 증가로 이어졌다.

중국의 가공·통조림 참치 제품 수출량은 62%나 증가한 15만 2,830톤이다. 중국산 제품은 미국, EU, 중국, 러시아 등으로 수출되었다.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의 수출량 또한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는 지역 가공업체로의 자숙로인 수출 증가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보고서는 설명하였다. 네덜란드는 같은 EU 국가로의 수출 허브 역할을 하는 주요 수출국으로 보고서에서 언급되었다. 네덜란드의 2024년 1~9월 수출량은 3만 9,400톤을 기록하였다.

* 출처: Atuna, 2025년 3월 14일자



日 냉동 눈다랑어 수입량, 대기선 문제 해소로 급증 전년도 동월 대비 84% 증가

일본 재무성 무역통계에 따르면, 다랑어류의 2월 수입 실적은 신선·냉장 제품 수입량 202톤(전년도 동월 대비 9% 증가), 수입액 3억 9,800만 엔(22% 증가), 냉동 제품 수입량 1만 4,802톤(16% 증가), 수입액 179억 8,400만 엔(6% 증가), 가공품 수입량 3,549톤(5% 감소), 수입액 29억 5,500만 엔(4% 감소)이다.

냉동 눈다랑어 GG(아가미, 내장 제거 제품)의 2월 수입량은 5,325톤으로, 전년도 동월 대비 84% 증가하였다. 1월 수입량인 3,750톤에 비하면 42%나 증가하였다. 초저온 냉동고의 공간을 기다리는 대기선이 대폭 해소되면서, 입항 후 비교적 원활하게 통관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비중이 큰 대만산의 수입량은 3,146톤으로, 5개월 만에 3,000톤을 넘어섰다.

계약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체선료(물류 화물을 보관하기로 약속한 기간을 초과할 때 발생하는 추가 비용)'나 운반선 운임 인상 등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관계자는 전하였다. 운반선의 체항 일수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하여 어창의 보관 방식을 효율적으로 바꾸는 등 현장에서도 변화가 관측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눈다랑어의 2월 단가 평균은 전체 평균과 대만산 평균 모두 kg당 732엔으로, 전월 대비 약 4% 상승하였다. 2024년 연말에는 냉동 눈다랑어의 인도양 대만 선박의 일선매입(一船買い, 어선 한 척의 어획물을 개체당 무게 상관없이 사전에 계약한 가격으로 사들이는 매입 방식) 가격은 대형 눈다랑어(40kg 이상) 기준 kg당 800엔으로, 약 반년 만에 상향 조정되었다. 연

초에는 25kg 이상과 그 이하의 제품도 50엔 가량 상향 조정되었다.

다만 가격 상승은 품질 평가 등의 요인보다도, 현재 냉동고의 공간과, 3~4개월 이후의 반입 정보 등을 감안한 판단으로 보인다. 대형 할인점이나 소매점 등 최종 소비 가격의 변화는 관측되지 않는 상황이며, 음식점 등의 유통까지 감안하면 '소비가 호전되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긍정적인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다.

지중해 연안산 양식 참다랑어 냉동 필렛의 수입량은 다소 주춤하였다. 2월 수입량은 3,416톤(14% 감소)이다. 다만 시즌 단위로 비교하면, 작년 11월~올 2월의 이번 시즌은 합계 1만 2,192톤으로, 전년 동기의 9,437톤보다 29% 증가하였다. 평균 단가도 이번 시즌은 kg당 2,559엔으로, 전년도 동기 대비 12%나 상승하였다.

신선 제품의 경우, 멕시코산 양식 참다랑어의 증가가 계속되고 있다. 수입량은 146톤으로 39톤이었던 지난해 같은 기간의 3.7배나 된다. 고관세로 막힌 미국 수출분이 일본으로 돌아왔다는 점도 있으나, 공급 과잉 또한 원인으로 추측된다. 단가는 kg당 2,130엔(27% 하락)으로 전년도 대비 급락하였고, 1월 가격인 2,152엔과 비교하여도 하락하였다.

신선 남방다랑어는 지난해 같은 달 11톤이 수입된 뉴질랜드산의 반입이 늦어져서, 수입량이 189kg에 그쳤다. 인도네시아로부터 2.5톤이 수입되었으나, 평균 단가는 kg당 1,500엔에 그쳤다.

*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5년 4월 4일자



日 2025년 2월 냉동 다랑어류 수입 통계 발표

한국산 눈다랑어 131톤 수입

〈 2025년 2월 일본 냉동 다랑어류 수입 통계 〉

(단위: 톤)

어종	국가	2025년 1월	2025년 2월
날개다랑어	한국	43	87
	대만	127	38
	바누아투	-	11
	기타	287	57
	소계	458	194
황다랑어	한국	131	657
	중국	259	420
	대만	767	1,074
	필리핀	-	-
	인도네시아	-	-
	미국	-	-
	바누아투	9	128
	피지	-	-
	카리바시	-	-
	마셜제도	-	-
	기타	1,128	674
	소계	2,296	2,953
눈다랑어	한국	116	131
	중국	671	750
	대만	1,502	3,146
	필리핀	-	-
	인도네시아	-	-
	세이셸	1,253	632
	바누아투	71	432
	기타	138	234
	소계	3,750	9,075
남방참다랑어	한국	-	-
	대만	122	155
	호주	-	-
	소계	122	155

*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5년 4월 4일자



중서부태평양 2월 어획량, 전월 대비 10% 감소

어업 노력량 감소

PNA 수역과 공해에서 어업 노력량 총합은 1월 대비 10% 감소한 3,511일이다. PNA 수역에서의 어업 노력량은 11% 감소한 3,229일이다. 다만 2024년 2월과 비교하면 6% 증가하였다.

선망선단의 어업 노력은 주로 서쪽에 치우쳤고, 특히 파푸아뉴기니(이하, PNG)에 집중되었다. PNG 수역에서의 어업 노력량은 전체 어업 노력량의 48%인 1,685일이었다. 키리바시에서의 어업 노력량은 전체의 14%인 492일이었다. 솔로몬제도에서의 어업 노력량은 355일이었다. 공해 어업 노력량 비중은 전체의 8%로, 1월의 7% 대비 소폭 상승하였다.

어업 노력량 감소로 인하여 2월의 총어획량은 9만 330톤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1월의 12만 8,265톤 대비 30%나 감소한 수치이다. 이는 2023년 5월 이

후 가장 적은 월간 어획량이다. 2024년 2월과 비교하면 19% 감소하였다.

가다랑어 어획량은 6만 2,505톤으로, 1월 어획량인 9만 5,000톤 대비 35% 감소하였다. 대형, 소형 황다랑어와 아성체 눈다랑어의 어획량은 모두 감소하였다. 대형 눈다랑어(9kg 이상)만이 14% 증가한 2,379톤의 어획량을 기록하였다.

2월 PNG 수역에서의 어획량은 4만 6,972톤으로, 다른 모든 수역의 어획량을 합친 것보다도 많았다. 키리바시 수역에서의 어획량은 1만 1,743톤이었다. 나우루에서의 어업 노력량은 그리 많지 않았으나, 어획량은 1만 840톤을 기록하였다. 공해에서의 어획량은 7,226톤으로 전월 수준을 유지하였다.

* 출처: Atuna, 2025년 3월 20일자

인도네시아, IOTC 황다랑어 자원 계획 반대 철회

데이터 재검토 이후 이의 철회

인도네시아는 인도양참치위원회(이하, IOTC)의 2021년 인도양 황다랑어 자원 회복 잠정 계획에 대한 반대를 철회하였다. 이러한 결정의 주요 원인은 데이터 불일치의 조정이었다.

지난 2021년, 인도네시아는 IOTC가 재측정한 데이터로 인하여 IOTC 결의안 21/01에서 자국 황다랑어 쿼터가 2019년 결의안 대비 40%나 감소하자, 결의안에 반대를 표명하였다.

인도네시아 측이 지난 3월 6일 IOTC 사무국에

전달한 서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IOTC 지원하에 2021년부터 이들의 데이터에 대한 포괄적인 재측정 및 검토에 들어갔다. 재검토 및 재측정 과정의 결과는 데이터 수집 및 통계 작업자와 2024년 과학위원회에 의해 철저히 평가되고 승인되었다.

재측정된 데이터 세트는 IOTC의 신뢰할 만한 어업관리조치 수립에 크게 기여할 강력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한다고 서한은 밝혔다.

* 출처 Atuna, 2025년 3월 17일자



태국 2024년 통조림 해외 수출, 32% 증가

어획량 증가 등 다양한 요인 영향

태국 통조림 업계는 2024년 중서부태평양 가다랑어 어획량 증가 및 시장 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24억 2,000만 달러의 수익 실적을 기록하였다. 태국 통조림 수출량은 전년도 대비 30% 이상 증가하였는데, 특히 미국 시장에서의 성장과 이집트 시장 회복이 눈에 띄었다.

태국의 2024년 통조림 수출량은 총 54만 8,704톤이다. 이는 2023년 수출량 대비 13만 2,917톤 증가한 수치이다. 2024년도 방콕 어가가 낮은 편이었으나, 태국산 통조림의 평균 수출 가격은 전년도 대비 톤당 2%만 하락한 톤당 4,413달러였다. 운임과 환율 등으로 인하여 비용이 증가하였다. 2024년 수출량은 최고치를 기록하였던 2020년에 비하여 1만 톤 정도밖에 차이 나지 않았다.

미국 시장의 회복은 2024년 초반부터 관측되었으며 한 해 동안 이러한 추세를 이어나갔다. 태국의 미국 시장 통조림 수출량은 2023년도 대비 27% 증가한 10만 6,033톤이며, 2022년도보다도 많은 양을 기록하였다. 평균 가격은 톤당 4,671달러이다. 태국산 통조림은 일반적으로 가다랑어 및 날개다랑어 제품을 미국 서부 항구로 수출한다.

이집트 시장으로의 수출량은 전년도 대비 113% 증가한 3만 9,526톤으로, 급감하였던 2023년도 수준에서 회복하였다. 평균 가격은 톤당 3,008달러로 주요 시장 중 최저가 수준이다. 이집트는 2024년에 화폐가치가 폭락하였고, 통조림 수입 또한 이 사태의 영향을 받았다.

리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로의 수출량 또한 증가하였다. 리비아로의 수출량은 17% 증가한 4만 1,090톤, 사우디로의 수출량은 14% 증가한 3만 5,072톤, UAE로의 수출량은 46% 증가한 2만 9,961톤이다. 이스라엘로의 수출량은 97% 증가한 2만 7,651톤이다. 중동 시장은 태국의 프라이빗라벨(Private Label, 유통업체가 자체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는 상품) 제품 주요 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MSC 인증 참치가 부족한 것으로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 제품 선호도가 높은 호주 시장으로의 수출량은 전년도 대비 18% 증가한 3만 9,112톤을 기록하였다.

남아공으로의 수출량은 102% 증가한 1만 928톤, 영국으로의 수출량은 87% 증가한 6,377톤으로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였다.

주로 저가 통조림 제품이 대상인 남아공 시장 수출량은 2023년에 크게 감소하였으나 2024년에 다시 회복하였다. 평균 가격은 9% 하락한 톤당 3,596달러였다.

영국 시장은 유통업체 및 John West 브랜드가 태국의 주요 수출 대상이다. 타이유니온은 세이셀에 위치한 IOT 공장이 인도양 어장 공급 감소로 인하여 John West 브랜드에 공급할 황다랑어와 가다랑어 제품이 부족해지자 태국으로 생산을 이전한 것으로 추측된다.

* 출처: Atuna, 2025년 2월 11일자



아프리카, 2024년 태국산 통조림 수입 회복

오세아니아 수입량 29% 증가

리비아, 이집트 등 북아프리카 국가와 남아공 등의 2024년 태국산 참치 통조림 수입량이 2023년 대비 약 50% 증가하였다. 태국산 참치의 수입 가격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하락하였다.

아프리카 국가의 태국산 참치 통조림 수입량은 2023년에 감소하였으나 2024년에 다시 주요 구매 지역의 지위를 회복하였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2024년 태국산 통조림 수입량은 9만 5,471톤으로, 전년도 대비 48%나 증가하였고, 평균 가격은 톤당 3,576달러이다. 이집트와 남아공에서의 수입량이 특히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리비아의 2024년 태국산 통조림 수입량은 4만 1,090톤으로, 전년도 대비 물량은 17% 증가하였고, 평균 가격은 3% 하락한 톤당 4,027달러이다. 리비아의 수입량은 지난 4년간 꾸준히 증가하였는데, 정치적 혼란이 진정된 것에도 영향을 받았다. 이들의 주요 수입 품목은 자체라벨(private label, 특정 기업의 생산품을 다른 기업의 상표로 판매하는 방식) 제품이다.

이집트의 수입량은 전년도 대비 113%나 증가한 3만 9,526톤이며, 평균 가격은 1% 하락한 톤당 3,008달러이다. 이집트의 수입량은 2023년에 이집트 화폐 가치 폭락으로 인하여 급감하였으나, 올해에는 다시 회복되었다.

남아공의 수입량은 1만 928톤으로 전년도 대비 102% 증가하였다. 평균 수입 가격은 톤당 3,596달러로 경쟁력 있는 가격대였다. 이들의 수입 물량은 대부분 가다랑어 플레이크 제품이었다.

한편, 오세아니아 국가들의 2024년 태국산 참치 통조림 수입량은 총 5만 4,118톤으로, 전년도 대비

29% 증가하였다. 평균 가격은 톤당 4,701달러로, 전년도 대비 3% 하락하였다.

오스트레일리아의 태국산 통조림 수입량은 3만 9,112톤이며, 평균 가격은 전년도 대비 2% 상승한 톤당 5,143달러이다. 오스트레일리아 시장은 나우루 협정당사국 수역에서 어획된 MSC 인증 참치에 대한 수요가 높으며, 높은 판매량도 이러한 이유 때문으로 해석된다. 미국 심플로트사 산하의 존 웨스트 오스트레일리아는 자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참치 브랜드로, 50종류 이상의 MSC 인증 참치를 판매한다.

뉴질랜드의 태국산 통조림 수입량은 6,281톤으로, 전년도 대비 1,459톤 증가하였다. 평균 가격은 8% 상승한 톤당 5,426달러로 오세아니아 시장 중 가장 고가였다. 가격으로 유추해 볼 때 수입량의 상당수가 프리미엄 제품으로 추정된다. 뉴질랜드의 태국산 통조림 평균 수입 가격은 2023년과 2024년에 오세아니아 시장에서 가장 높았다.

검은살참치를 선호하는 파푸아뉴기니(이하, PNG) 시장의 선호도는 올해에 강하게 나타났다. PNG의 태국산 통조림 수입량은 5,600톤으로, 전년도 대비 약 3배로 증가하였다. 평균 가격은 매우 낮은 편인 톤당 1,726달러로, 전년도와 거의 비슷하였다.

바누아투와 키리바시의 수입량은 각각 202%, 207% 급증하였으나, 다만 타 시장보다 총량은 매우 적은 편이었다. 키리바시의 수입 가격은 매우 낮은 편인 톤당 1,543달러로, 수입 물량의 상당수가 저품질 가다랑어 제품으로 추측된다. 미크로네시아의 수입량은 418톤으로, 전년도 대비 약 25% 증가하였다.

* 출처: Atuna, 2025년 3월 11일자, 19일자



인도네시아 선원, '인권침해 어선' 조달 범블비에 소송

中 연승선 2척 인권침해 혐의

인도네시아 선원 4명이 수요일 캘리포니아 남부 지방 법원에 범블비 씨푸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선원들은 자신들이 중국 참치 연승선의 가혹한 조건에서 승선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고소를 통하여 범블비가 회사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고의로 이러한 선박에서 날개다랑어를 공급받았다고 주장하였다. 선원들은 배심 재판을 요청하였다.

소송 문서는 3월 12일에 제출되었다. 인도네시아 시골 마을 주민인 원고들은 상업적 어선 지원 당시 약속된 임금을 받는 양질의 일자리 대신 신체적 학대와 폭력을 당했고, 적절한 식사를 제공받지 못하였으며, 심각한 부상을 입었을 때에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다시 업무에 복귀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소송을 제기한 선원 4인 중 Angga와 Muhammad Sahrudin은 'Lu Rong Yuan Yu 878' 호에 승선하였고 Syafi는 'Lu Rong Yuan Yu 211' 호에 승선하였다.

중서부태평양참치위원회(이하, WCPFC) 기록에 따르면 'Lu Rong Yuan Yu 878' 호는 Shangdong Shawadao 선사의 선박이며, 후자의 연승선은 Rongcheng 선사가 소유하고 있다. 'Lu Rong Yuan Yu 211' 호는 Aoxian(Shenzhen) 선사에 매각되었고 현재는 'Jinyang 807' 호로 개명되었다.

이 고소장에는 또한 그린피스 미국 지부와 동아시아 지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나온 범블비 공급망의 강제 노동에 대한 이전의 주장도 기재되어 있다. 'Misery At Sea', 'Seabound: The Journey to Modern Slavery on the High Seas', 'Fake My Catch' 등의 보고서도 포함되어 있다.

선원들은 또한 월급이 계약서에 제시된 것보다 훨씬 낮았다고 진술하였다. 소송을 제기한 선원 중 1명인 Akhmad의 계약서는 월급 300달러로 명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모집 및 행정 비용을 상환하기 위해 첫 8개월간 월급 200달러가 공제되었고, 선상에서 생활비로 월급 50달러가 추가로 공제되었다. 그 결과 Akhmad는 월 50달러만을 받을 수 있었다.

고소장에는 범블비의 연간 수익이 10억 달러를 넘으며, 2020년 이후로 대만 참치 거래업체 FCF가 범블비의 지분 전체를 소유하고 있다고 나와 있다. 소장에는 범블비가 강제노동을 방지하기 위한 자체 정책이 있으나 충분치 않다고 명시되었다.

원고들은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범블비가 공급망에서 더 엄격한 정책을 시행하도록 강제할 것을 법원에 요구하였다. 이들의 요구에는 범블비가 선원에게 비용 지불 요구나 불이익을 강제하는 인력 회사를 이용하지 않도록 협력사에게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또한 범블비가 선원의 월급을 전액 보장하고, 과거에 선원들이 지급하였던 수수료와 미지급된 급여 등의 보장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다.

이들은 또한 범블비에 해상에서 전재하는 선박과 거래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요구사항에는 선박이 3개월마다 항구로 복귀하는 것, 선원에게 최소 10일의 유급 육상 휴가 제공, 선원의 고충 처리 체계, 당국 또는 기타 지원 체계에 접근할 수 있는 의료 장비 및 WiFi 접근 허용 등이 있다. 원고 측은 또한 법원에 범블비의 협력사가 선원에게 24시간당 최소 10시간의 휴식을 제공하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하였다.

* 출처: Atuna, 2025년 3월 13일자



日 미쓰비시상사 “참치 등 조달 시 인권 문제 중점”

참치 어선 인권침해 감시·방지책 강화

일본 최대의 참치 취급 기업인 ‘토요냉장’의 모기업이자 종합 대기업 ‘미쓰비시상사’는 항해 중인 참치 어선에서의 강제 노동이나 인권침해를 감시·방지하는 시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쓰비시상사는 참치를 조달하는 항해 중 어선의 노동 환경을 조사하기 위하여, 2022년부터 외부 감독기관을 고용하여 외부감사를 개시하였다. 올해부터는 귀향한 어선에 미쓰비시상사/토요냉장 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내부감사를 시작하였다.

해당 업무를 지휘하는 미쓰비시상사 수산부의 기사다 유스케 사업전략팀장은 “선원과의 대화를 통하여, 실태와 과제가 더욱 명확하게 보인다”라고 말하였다.

이하는 기사다 팀장과의 인터뷰이다.

Q. 선원 인권 보호 대책을 시작한 배경은.

A. 외국의 바다에서 어획하는 원양 연승선은 한 번에 1년 이상 항해하지만, 바다 위이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감시가 닿기 어렵다. 참치 업계의 대기업으로 알려진 미쓰비시상사그룹이 업계를 선도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선원 인권 보호 대책을 시작하였다.

21세기 참치 사업의 첫 화두는 자원 보호였다. 우리 미쓰비시 그룹도 NGO나 업계 관계자의 대화를 통하여, 2008년에 참다랑어류의 보전이나 지속가능한 공급을 생각하는 방식 또는 대책을 명시한 <참다랑어류에 관한 성명>을 공표한 적이 있다.

참다랑어는 국제적으로 엄격히 관리되어 자원이 회복되는 중이며 고갈에 대한 우려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언론과 NGO 등의 이해관계자들이 IUU 어업이나 인권침해 근절 등을 주목하고 있다.

원양 연승선은 항해 기간이 길며, 적절한 노동 환경을 담보하는 것이 업계 최대의 과제이다. 선원의 고령화가 진행 중이며, 어선 척수도 줄어들고 있다. 지속 가능한 사업의 구축이 우리의 최대 과제이다.

Q. 방지 대책은.

A. 미쓰비시상사는 2017년부터 설문조사 형식의 공급망 조사를 시작하였다. 수산에서는 참치와 새우 부문에서 본조사를 개시하였다. 미쓰비시 그룹의 거래처에 매년, 인권이나 환경, 회사 정책 등을 질문하고 있다.

참치 부문 조사의 경우, 직접 거래처에 해당하는 ‘1단계(티어)’, 1단계의 직접 거래처인 ‘2단계’로 나누어서 조사를 실시한다. 1단계는 전 회사 대상, 2단계는 일본, 중국, 대만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가운데 일본과 중국선은 전 선박, 대만선은 현재 약 50%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 앞으로는 우선순위를 정하며 조사 범위 확대를 도모할 것이다.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외부 감사기관을 고용하여 실시하는 외부감사를 2022년도부터 시작하였다. 앞으로는 본사(육상) 근무자·어로장·일반선원 3단계에 걸쳐 실시할 것이다.

어선의 귀항 타이밍과 외부 감사인과의 일정을 맞추는 것이 어렵다는 점과, 신속도나 감사 건수 문제가 등이 과제이다. 이 과제를 보완하는 형태로 더욱 신속하게 대응이 가능한 내부감사를 올해부터 시작하였다.

원양연승선은 선망선에 비하여 항해가 길고 오픈서버의 승선률이 낮으므로 인권침해의 위험성이 더 높다고 판단하여 우선하여 내부감사를 실시한다.



현시점에서는 감사를 통하여 거래 정지에 이르는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현재의 감사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매년 공급망 조사나 외부감사, 내부 감사를 계속하면서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계속 검토할 것이다.

Q. 참치류에 관한 조달 가이드라인을 공표하고 있다.

A. 2020년에는 한 매입처 회사가 인권침해와 IUU 어업을 하고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해당 보도를 받은 이후, 동사에 대한 우려가 불식할 때까지 동사와의 참치거래를 중단하기로 하였다. 또한 환경 보호 측면에 특화된 '참다랑어류에 관한 성명'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점을 인식하여, 2022년 미쓰비시상사그룹의 인권보호와 조달 방침을 나타내는 '참치류 관련 조달 가이드라인'을 책정, 공표하였다.

현재 내용도 현행 감사 등을 바탕으로,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갱신한다. 또한 2년 전부터 공급망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창구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배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미쓰비시상사에 통보할 수 있는 시스템의 보급에도 임하고 있다.

Q. 업계와의 제휴는.

A. 국가의 리더십과 법 정비가 필요한 영역도 있다. 법률로 정해지지 않은 대책에 강제력은 없다. 일본의 어선은 적절하게 노무관리를 하고 있지만, 의혹이 발생했을 경우 노무관리에서의 진실성이나 정당성을 증명하는 '증빙'이 되는 서류 정비가 진행되지 않았다. 규정화는 곧 어업자를 지키는 것이므로, 업계의 깨끗한 이미지로 이어지는 시책은 추진해야 한다.

지키기 쉬운 범위에서의 규정화라고는 해도, 체계를 만든다는 최초의 행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행정당국이 횡단적으로 협력하여 업계에서 폭넓게 이해관계자를 모아 의견 교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해에는 참치산업 관련 타 기업들과 연계하여, IUU 어획 및 인권침해 대책의 추가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의 진정을 수산청에 제출하였다. 또한 지금까지 다양한 대처 중에서 우리가 얻은 정보를 세미나의 개최나 등단을 통하여 업계에 알리는 등, 우리도 행정당국이나 업계 단체, 타사와 제휴하면서, 인권 보호 대응책을 촉구해 나가고 싶다.

* 출처: 미나토신문, 2025년 3월 20일자

대서양 FAD 금어기, 3월 17일부터 발효 4월 30일까지 45일간 진행

대서양다랑어위원회(이하, ICCAT) 관할 수역의 FAD 금어기가 3월 17일부터 시작되며, 모든 선박은 금어기 동안 부상근 조업(free-school fishing)만이 허용된다. 해당 금어기는 지난 5년간 시행되었던 72일 금어기(1월 1일~3월 13일)를 대체한다. 금어기 제도는 2020년에 눈다랑어와 황다랑어 아성체의 사망률을 줄이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ICCAT은 11월 연례회의에서 3월 17일에 시작하여 4월 30일에 끝나는 45일간의 금어기를 채택

하였다. 회원국들은 또한 눈다랑어 쿼터 증가(7만 3,011톤), 소규모 어업을 대상으로 한 6,100톤의 새 할당량 및 황다랑어 쿼터 유지(11만 톤) 등에 합의하였다. 집어 장치의 수는 2025년 선박당 300개에서 2026년에 선박당 288개로 감소한다.

대서양에서 조업하는 선사들은 기존의 FAD 금어기가 지나치게 길었고, 어획량 및 지역 가공업체 공급에 타격을 준다고 호소하였다.

* 출처 Atuna, 2025년 3월 19일자



美 정부 인력 감축, RFMO 참여와 엘니뇨 예보에 영향

美 NOAA 수산청 인력난 심화로 업무 수행 타격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정부 공무원 감축 물결은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이하, NOAA)의 수산과학 및 관리기구 역할을 하는 NOAA 수산청에도 타격을 입혔다. NOAA 수산청은 이미 이전부터 의회가 배정한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한 상태였다. 이러한 이유로 NOAA가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NOAA 수산청은 미국의 해양자원과 서식지 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이들은 모든 주요 참치 어종의 지역수산관리기구(이하, RFMO) 회의에 참석하며, RFMO의 과학위원회에도 자주 참석한다.

그러나 미국 뉴스 사이트 '와이어드'의 보도에 따르면, NOAA 수산청 직원들은 지난 2월 초 "모든 국제적 참여"를 중단하라는 내부 이메일을 수신하였다. 해당 지시에는 국제 위원회 참여와 해외 이해관계자에 대한 메일 발신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국제 협력자와 진행 중인 모든 작업에 대한 세부 정보는 NOAA 수산청이 속한 상무부의 상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NOAA 온라인상의 '협의회 회의 일정'에는 NOAA 수산청이 한 해 동안 참여하는 모든 RFMO 회의가 정리되어 있으나, 현재는 2025년 3월 이후로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NOAA 소속 직원과 과학자의 수는 약 1만 2,000명이다. 이들은 어업 모니터링과 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해양기상예보(엘니뇨), 해양기후과학 등 여러 분야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성부처(이하,

DOGE)는 지난 2월 말 약 1,200명의 직원을 해고하였고, 이어서 1,029명을 추가 해고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NOAA에 큰 타격을 입혔다.

NOAA의 기상 및 기후 예보 서비스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여러 국가의 참치를 비롯한 다수 어업에 필수적이다. NOAA는 엘니뇨와 라니냐 현상과 함께 이 현상이 지역 및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관측하고 예측하는 과학자 및 기술진을 보유하고 있다. 엘니뇨와 라니냐는 전 지구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기후 현상이다.

NOAA 수산청은 미국 수역 내 참치 및 기타 어업에서 중대한 역할을 하는 매그너슨-스티븐스 법안의 시행 및 감독에도 관련이 있다. 해당 법안에 따라 2024년 1월 새로운 규칙이 발효되었다. 해당 법에 따라 NOAA 수산청은 어족 자원의 예측, 어획 한도 설정, 어업 규정 준수, 혼획 감소 등을 수행한다.

지난 11월, NOAA 수산청은 일명 'SIMP'로 불리는 '수산물 수입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참치를 비롯한 다수 수산물이 이 프로그램의 대상이다. 해당 로드맵은 이력 추적 능력 및 위험성 감지 능력, 세계 수산물 지속가능성 강화 등을 통하여 IUU 어업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NOAA 수산청은 미국 수산업계와 수산업 의존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FISHES' 법안에서도 능동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 출처: Atuna, 2025년 3월 18일자



美 2월 참치 통조림 소비자가격지수 0.1% 하락

관세 여파로 타 수산물 가격 상승세

미국의 2월 소비자 생필품 가격 지수는 다소 상승하였다. 소비자물가지수(이하, CPI) 수치에 따르면, 2월에 미국의 수산물 가격은 다소 상승하였다. 그러나 상온보관 참치 제품을 비롯한 일부 수산물의 가격은 소폭 하락하였다.

미국 노동통계청의 지난 3월 중순 발표에 따르면, 미국의 2월 CPI는 1월 대비 약 0.2% 상승하였다(1월에는 작년 12월 대비 0.5% 상승). 전 품목에 대한 가격 지수는 지난 12개월 동안 2.8% 상승하였다.

자료 조사 기업인 Circana와 210 Analytics사에 따르면, 냉동 수산물의 2월 매출액은 전월 대비 8.5% 증가한 6억 6,300만 달러(유로화 기준 6억 1,000만 유로)이다. 그러나 매출량 기준으로는 11.7% 감소하였다.

매튜 셰이 전미소매판매재단 회장 겸 CEO는 무역 및 물류 웹사이트인 Xchange와의 인터뷰에서 “소비자의 소비는 2월에 다시 한번 감소하였다. 원인으로서는 겨울의 혹한, 관세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 실업 증가 우려, 정책 불확실성 등이 있다.”라고 말하였다. 회장은 이러한 내림세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중국 제품 10% 관세 및 캐나다, 멕시코 제품 25% 관세 부과 추진으로 인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CPI에 따르면 수산물 제품 가격은 2월에 전월 대

비 0.7% 상승하였다. 전년도 2월에 비하면 1.8% 상승하였다. 냉동 어류의 가격은 1월 대비 1.4% 상승하였는데, 이는 매출량 하락에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 상온보관 참치 제품과 기타 수산 제품은 전월 대비 0.1%만 하락하였고, 전년도 동월과 비교하면 0.3% 하락하였다.

미국에서는 2월 상온보관 참치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있었다. 타이유니온의 미국 자회사인 트라이유니온 시푸드는 보툴리누스균 감염이 의심되는 브랜드 제품을 미국 25개 주에서 자발적으로 리콜하였다.

전체 식품의 CPI는 2월에 전월 대비 0.2% 상승하였다. 가정식 지수는 전월과 비슷하였다. 주요 6개 식료품점 그룹 중 네 곳에서의 지수가 하락하였고, 다른 두 곳은 상승하였다.

그러나 2024년 2월과 비교하면 전체 식품 가격 지수는 1.9% 상승하였다. 고기, 가공육, 어류, 달걀류의 가격 지수는 가장 높은 7.7% 상승을 기록하였는데, 달걀류와 소고기류의 가격이 특히 급등하였다. 달걀류 가격은 조류인플루엔자의 여파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 다진 소고기 제품의 가격은 육우 감소, 비용 상승, 강력한 소비자 수요로 인하여 파운드(lbs)당 5.625달러라는 기록적인 고가였다.

* 출처: Atuna, 2025년 3월 19일자



美사모아, 자국 산업에서 스타키스트의 역할 지지

스타키스트 운영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 추진

아메리칸 사모아에서 가장 큰 참치 통조림 공장 중 하나를 운영하는 스타키스트는 현지 정부 다음으로 많은 인력을 고용하고 있다.

아메리칸 사모아의 플라알리 니콜라오 플라 주지사는 한국 기업인 동원산업이 지분을 보유한 스타키스트를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아메리칸 사모아는 남태평양에 있는 미국의 미통합 영토로, 5개의 주요 섬과 2개의 산호 환초로 구성되어 있다. 태평양의 전략적 장소에 위치하며, 참치 산업에 경제적으로 크게 의존하고 있다. 스타키스트는 이 지역에서 가장 큰 참치 통조림 공장 중 하나를 운영하고 있다.

스타키스트의 신임 CEO 겸 사장인 민은홍(에드워드 민)은 취임 이후 아메리칸 사모아 주지사를 처음 방문하였다. Procter & Gamble사에서 30년간 근무하고 스타키스트의 모기업인 동원산업에서 부사장을 역임한 민 신임 대표이사는 지난 2월 스타키스트의 새로운 대표이사 사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민간 부문 동반관계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주지사와 스타키스트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였다.

“민간 부문을 포함하고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곳이 수익이 발생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스타키스트는 정부 다음으로 많은 고용을 창출하며, 우리는 이러한 관계 지속을 원한다.”라고 주지사는 말하였다.

주지사는 참치 산업의 지역적 경쟁을 인정하면서 스타키스트의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방 정부의 지원을 모색하고 있다고 확인하였다. 이는 주변 태평양 국가들과의 무역 관계를 강화하고 수년에 걸쳐 경제 협력과 성장을 촉진하려는 주지사의 광범위한 비전과도 일치한다.

민은홍 사장은 주지사의 지원에 감사를 표하고 아메리칸 사모아에 대한 스타키스트의 장기적인 약속을 확인하면서 기업의 성공과 지역사회의 번영을 이끄는 데 있어 스타키스트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5년 3월 12일자





베트남의 영국 참치 수출 성장세

UKVFTA, CPTPP 등 협정으로 수출에 장기적 이점 보유

베트남의 대영국 참치 수출은 2021년 510만 달러에서 2024년 800만 달러로 증가하며 견고하고 단계적인 성장세를 보인다. 특히 올해 첫 두 달 동안 수출액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4% 증가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예고하였다.

베트남 수산물 수출 및 생산자 협회(이하, VASEP)에 따르면 영국은 영국-베트남 자유무역협정(이하, UKVFTA),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하, CPTPP) 등 자유무역협정에 힘입어 베트남 참치의 중요한 성장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 협정은 특히 관세 인하와 무역 촉진 조치 측면에서 베트남 수산물 수출업체에 상당한 이점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참치는 영국 소매 부문에서 연어와 대구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이 소비되는 생선이다. 영국 시장에서 참치는 주로 여행 및 이동 중 소비를 위한 샌드위치와 즉석식품 등 편의식품에 사용된다.

영국 환경식품농촌부 산하 비부처(non-departmental) 공공기관인 Seafish의 데이터에 따르면 영국 소비자의 69%가 수산물 통조림 제품을 선택할 때 참치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치는 기름 함량이 높아 다양한 가공 방법에 적합하여 샐러드, 샌드위치 토핑, 소스, 여행용 간편식 등 참치 가공 제품도 인기가 높다.”라고 VASEP은 설명하였다.

지정학적 긴장과 거시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주요 글로벌 수산물 수출 시장이 침체하였음에도 베트남 참치는 영국에서 경쟁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베트남 수출업체가 기존 협정에 따

른 특혜 무역 조건으로 장기적인 이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CPTPP에 따라 베트남산 가공 및 통조림 참치에 대한 관세는 7년에 걸쳐 20%에서 0%로 점진적으로 인하되어 가격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UKVFTA는 베트남 참치 수출업체에 연간 1만 1,500톤의 쿼터 내에서 적용되는 제로 특혜 관세율을 제공한다.

CPTPP에 따른 베트남 참치 수출업체의 주요 돌파구는 그동안 시장 접근에 상당한 장벽으로 작용했던 원산지 규정 개정에 있다.

이전에는 엄격한 원산지 요건으로 인해 가공 및 수출에 사용되는 원재료가 전적으로 무역 블록 내에서 획득 또는 공급이 필요하여 기업이 규정 준수에 어려움을 겪었다.

호찌민시의 한 수산물 수출업체는 “이제 이러한 규제가 완화되었으므로 베트남 참치 수출업체는 시장 점유율 유지와 경쟁력 강화에 결정적인 요소가 될 안정적이고 추적 가능한 원자재 공급을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현재 영국 참치 시장에서 베트남의 주요 경쟁국은 에콰도르와 중국이다.

참치는 베트남 수산업의 초석으로, 새우와 팡가시 우스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매출을 창출하는 수산물로 전체 수산물 수출액의 10%를 차지한다.

VASEP에 따르면 베트남의 참치 수출액은 2024년에 17% 증가하여 10억 달러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 출처: Tui tre News, 2025년 3월 20일자



PNG “신선 참치 일본 직접 수출 증대 원해”

수산청·국적 항공사에 수출 증대 전략 수립 요청

파푸아뉴기니(이하, PNG)는 일본으로의 신선 참치 직접 수출의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일본과 PNG 간 무역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바 있는 제임스 마라페 PNG 총리는 PNG 수산청 및 PNG 국적 항공사인 ‘에어뉴기니’에 이를 촉진할 전략 수립을 요청하였다.

마라페 총리는 최근 PNG의 2025년 일본 오사카 엑스포(4월~10월 말 진행 예정) 참석을 발표하면서 이러한 뜻을 밝혔다.

마라페 총리는 PNG 기업들이 5년 전에는 주로 에어뉴기니를 통하여 일본에 신선 참치를 수출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에어뉴기니는 승객 및 화물 부족으로 인하여 일본 직항 항공편을 중단하였다.

마라페 총리는 “직항편이 없다면 양국 간의 무역은 결코 성장할 수 없으므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일본의 참치회 시장으로 참치를 전달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총리는 직접 수출을 위한 긴급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총리에 따르면,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향후 수년 내로 PNG에 무역에서의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PNG 수산청 웹사이트에 따르면, 냉동 참치 원어와 어분은 선박편을 통하여 PNG에서 일본으로 운송되며, 냉장 참치 제품은 항공편을 통하여 일본 참치회 시장으로 전달된다.

* 출처: Atuna, 2025년 3월 12일자

베트남 참치, 원어 부족과 수출 규제로 난관 직면

국내외 규제 강화와 생산 제한 등 문제

베트남 참치 산업은 원어 부족과 국내외 규제 강화 등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베트남 플러스가 보도하였다.

가장 큰 문제는 베트남 국내 어선의 참치 공급이 제한되어 있어 공장의 생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새 법령은 가다랑어 개체의 체장미달 어종 어획 규정을 더욱 강화하여 설정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업계는 이러한 규제가 정상적인 어업 운영을 방해하고 공급망에 경제적 부담을 가중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레 민 호안 국회 부의장은 해양 자원을 보호하

고 유럽위원회의 지속가능성 권고에 부합해야 한다며 이 규정을 옹호하였다.

이에 따라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는 법령 개정안을 제안했으며, 4월 중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베트남은 참치 수출 시 무역협정의 관세 특혜를 받지 않을 경우, 12.5~35%에 이르는 미국의 새로운 관세를 가다랑어 통조림에 적용받게 된다. 그럼에도 베트남은 태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미국의 참치 공급국으로 남아 있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5년 3월 17일자



포클랜드 로리고오징어 어업, 긍정적 추세

4월 초 일일 약 50톤 어획...오징어 수요·어가 호조

스페인 선사 협회 ARVI의 하비에르 토우사 회장은 포클랜드제도 오징어 어업이 2025년 여기에 좋은 시작을 보이고 있으며, 집중적인 과학 조사가 성공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토우사 회장은 스페인 식품기업 'Chymar'의 CEO이자 EU 합작선사를 대표하는 단체인 'Acemix'의 회장이기도 하다.

토우사 회장은 “지난해는 오징어 자원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과학자들의 권고를 경청하면서 신중한 태도를 취하였다”라고 말하였다. 회장은 “이제 우리는 어업을 전면 재개하였다. 이러한 접근 방식으로 인하여 더욱 건강해진 자원 수준과 더 나아진 어업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라고 말하였다.

3월 1일 시작된 어기는 기후 변화가 오징어 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하여 고안된 2주간의 연구 단계에 뒤이은 것이다.

3인의 저명한 과학자가 진행한 해당 연구는 환경 변화가 포클랜드 오징어의 어체 크기 및 가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하는 것이 목표였다.

토우사 회장은 “결과는 대단히 흥미로웠다. 우리는 오징어의 기후 변화 반응에 대한 중요한 데이터를 다수 수집하였다. 이는 자원 관리를 위한 최선책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하였다.

16척의 산업형 어선으로 구성된 선단은 연구 단계 후 신속히 정규 조업으로 전환하여 선박 한 척당 하루 평균 50톤의 오징어를 어획하였다.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이다. 선단은 이미 매일 약 800톤의 오징어를 어획하였으며, 5월 3일 종료 예정인 어기가 끝날 때까지 목표 어획량인 4만~4만 2,000톤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회장은 덧붙였다.

과학자들과 협의한 후 작년 두 번째 시즌에 어업을 일시 중단하기로 한 결정은 자원이 회복할 시간을 주면서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주간 자원 평가는 이제 일상화되었으며, 과학자들은 생물량 수준과 오징어 개체수를 면밀히 모니터링한다. 선단에서 수집된 실시간 데이터는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 데 필수적이며, 인공 지능을 사용하여 어업에 가장 좋은 시간을 분석하고 예측한다.

“이와 같은 수준의 협력이 포클랜드 어업을 차별화하는 요소이다. 선박에서 얻은 데이터는 매우 귀중하여 필요에 따라 전략을 조정하고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실시간 권장 사항을 만들 수 있다”라고 토우사 회장은 말하였다.

회장은 또한 어업계와 과학자 간의 관계에서 투명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우리는 연구자들과 직접 연락할 수 있는 창구를 가지고 있으며,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공유한다. 이러한 투명성은 우리의 어업 관행과 과학자들이 오징어 개체군의 장기적 건강에 최선이라고 판단하는 방향 일치하도록 하는 데 필수적이다”라고 회장은 말하였다.

향후 수개월간의 상황을 예상하면, 지속가능성에 대한 집중과 세계 시장에 고품질 제품을 제공하려는 의지가 결합하여 포클랜드 오징어 어업이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위치에 설 수 있게 되었다. 토우사 회장은 “우리는 미래에 대해 확신한다”라며, “우리가 내린 결정, 선단 최신화에 대한 투자, 과학자 및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 등 모든 것이 우리를 현재의 위치로 이끌었다. 우리는 몇 년 전보다 훨씬 더



확고한 위치에 있으며, 우리가 취한 접근 방식이 계속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낼 것이라고 믿고 있다”라고 그는 지적하였다.

〈오징어 부문 수요 급증〉

포클랜드 오징어 어업은 또한 어획물의 가치 상승에 주력하고 있다. 많은 어업이 어획량에 집중하는 반면, 포클랜드 산업은 이제 품질과 프리미엄 제품을 강조하고 있다.

토우사 회장에 따르면, 이러한 전략은 이미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포클랜드 파타고니아 오징어는 특히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크로아티아와 같은 남부 유럽 국가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우사 회장은 “포클랜드 오징어에 대한 수요는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유럽의 상업 거래자들이 첫 번째 선적 물량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이 제품은 최상의 품질, 프리미엄 지위로 인하여 수요가 높다. 이제는 ‘가능한 한 많이 잡는다’에 그치지 않고, ‘제품이 시장에서 진정한 가치를 지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였다.

오징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격이 상승하였다. 다만 포클랜드 오징어의 높은 가격은 더 광범위한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수산물 단백질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계속 증가하면서 대체 제품의 가격도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포클랜드 오징어를 프리미엄 제품으로 정립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그것이 결실을 맺고 있다. 단순히 대량으로 어획하는 것이 아니라 프리미엄 가격을 요구할 수 있는 고품질 오징어를 어획하는 것이 목표이다”라고 토우사 회장은 말하였다.

오징어의 가격은 크기에 따라 크게 다르며, 약간의 차이도 상당한 변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토우사 회장은 설명하였다.

회장은 “크기가 1cm만 달라도 가격은 최대 80%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톤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징어가 도착하고 제대로 측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알 수 있다”라고 결론지었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5년 4월 7일자

포클랜드 오징어 조업, 좋은 시작

선어 11% 증가, 냉동 44% 감소

일본의 전국단위 어업단체의 연합인 JF전어련에 따르면, 2024년 1~11월 일본 국내 살오징어류 어획량(선어, 냉동 포함)은 전년도 동기 대비 5% 증가한 1만 5,598톤이다. 선어는 11% 증가한 1만 4,716톤이지만, 냉동은 44% 감소한 883톤이다.

11월 한 달 동안의 어획량을 보면, 선어 제품은 전년도 동기 대비 12% 증가한 1,542톤, 냉동 제품은 32% 감소한 205톤, 선어·냉동 제품 합계는 4% 증가한 1,747톤이다. 평균 kg당 단가의 경우, 선어 제품은 7% 하락한 998엔, 냉동 제품은 6엔 하

락한 1,766엔이다.

일본의 살오징어류 어획량은 최근 몇 년 동안 감소 추세이다. 2016년 6만 4,000톤을 기록한 이후로 계속 줄어 2019년 3만 3,000톤까지 감소하였다. 2020년에는 다소 회복하였으나, 2021~2023년은 과거 최저를 갱신하는 중으로, 특히 2023년은 1만 5,664톤에 그쳤다. 2024년의 어획량은 전년도보다 다소 많은 수준이지만, 어획량 부족 탈출은 여전히 불분명한 상황이다.

* 출처: 미나토신문, 2025년 1월 24일자



아르헨 지방정부, IUU 의혹 中 원양선사와 협약 체결 中 흥동선사와 어업 인프라 개발 협약 체결

아르헨티나 산타크루스주(州) 주지사는 중국 기업 흥동선사와 투자 협약을 체결하였다. 흥동선사는 최근 한 연구에서 IUU 어업 연루 의혹을 받은 적이 있다.

해당 협약은 수백 척의 해외 오징어채낚기 선단이 아르헨티나 인근으로 접근한다는 점에서 큰 논란이 되었다. 아르헨티나 오징어 어업은 연간 약 20억 달러를 창출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CNN의 보도에 따르면 약 550척의 선박이 아르헨티나 EEZ 근처로 모여든다. 이 550척 중 약 3분의 2가 중국 선단이며, 흥동선사의 채낚기 선박 또한 많은 수를 차지한다. 아르헨티나 해군은 이들을 감시하기 위하여 항공기와 군함을 동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아르헨티나 국방부 측은 지난 3월 8일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 선단이 EEZ 경계를 넘어 아르헨티나 수역에서 조업하기 위하여 AIS 추적장치를 끄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5일 발표한 성명에서, 클라우디오 비달 산타크루스 주지사는 흥동선사가 아르헨티나에 2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자금은 물류 허브, 신규 가공 시설 등의 어업 관련 인프라와 함께, 산타크루스주의 5개 항구(Puerto Deseado, Caleta Olivia, Rio Gallegos, Puerto San Julian and Puerto Santa Cruz)의 선박 서비스 수용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투자될 예정이다.

160척 이상의 선박을 보유한 흥동선사는 세계 최대의 원양 기업 중 하나이다. 이들은 모리타니와 가이아나에서도 조업 기지를 운영 중이다.

흥동선사는 선박 건조, 유류 및 설비 등의 보조금 형태를 통하여 막대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 흥동선사의 란핑용 CEO는 중국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회의의 대의원 경력이 있다.

흥동선사는 남아공,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등 다수 국가에서 반복적인 EEZ 침범 기록이 있다. 이들의 한 선박은 위기종을 포함한 수백 마리의 상어를 어획한 적이 있다.

2020년에 흥동선사의 한 선박은 24명의 필리핀 선원을 중국에 3개월간 방치한 적이 있다. 이 선원들은 중국 정부가 이들의 송환 비용을 지급한 다음에야 귀국할 수 있었다.

아르헨티나 해양 NGO 수장이자 해양보존 운동가인 미르코 슈바르츠만은 흥동선사가 아르헨티나에서 조업 기지를 건설하여 어선을 지원하는 것이 아르헨티나 수역 내의 IUU 어업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슈바르츠만은 “아르헨티나의 선단은 보조금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규제도 적용받지 않는 선사와 경쟁이 되질 않는다.”라며, “중국은 투자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항만을 통제하고 자원을 관리하려고 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역의 환경 및 노동 지속가능성에 있어 심각한 위협이다.”라고 지적하였다.

약 75척의 채낚기 선단을 대표하는 아르헨티나 채낚기선단회의소(CAPA)의 다리오 소크라테 이사는 홍콩의 아르헨티나 내 인프라 개발이 중국 선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이며, 이에 따라 아르헨티나 자국 선단의 잠재적 어획량 중 약 절반이 손실 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우려하였다.

아르헨티나 EEZ 경계 근처에서 오징어 조업을 하는 또 다른 중국 기업인 저우산화시선사, 룡청룽유안-상하이쿤팅상사는 홍콩과 파트너십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부 법률 전문가에 따르면 주 정부와 홍콩선사의 협약이 아르헨티나 의회를 거쳐야 하므로,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5년 3월 11일자

남미산 냉동 살오징어류, 수요 증가로 고가 추세

어획량 감소 추세, 각국 매입 수요 강화

일본 무역회사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선단이 적도상에서 어획하는 소형 아메리카 대왕오징어(적도오징어, 페루 2,000해리 거리 적도 수역에서 어획되는 오징어)의 어획량은 전월 대비 다소 감소 추세로, 1일 1척당 3톤이 어획되고 있다.

3월 상순 시점 중국에서의 가격은 고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크기별로 1미당 300g 이하 톤당 2만 1,400~2만 1,500위안, 300~500g 톤당 2만 1,400~2만 1,600위안, 500g~1kg 톤당 2만 2,500~2만 2,700위안, 1~2kg 톤당 2만 2,800~2만 3,000위안이다.

페루 아메리카 대왕오징어 어획량도 저조한 편이다. 사이즈별로 1kg 전후의 소형이 대부분으로, “공장에서의 작업 효율이 나쁘다”라고 무역회사 소식통은 말하였다. 칠레의 경우, 2월은 악천후로 인

하여 출어 횟수가 감소하였으나, 3월 들어 날씨가 좋아지면서 어획량도 회복 추세이다. 그러나 페루에서의 어획량 부족으로 인하여 각국의 매입 수요가 강해지면서 가격 상승 추세를 보인다.

아르헨티나 선단의 자국 EEZ 내 일렉소오징어 어획량(1~2월)은 전년도 동기 대비 7% 감소한 6만 1,492톤으로, 다소 감소하는 추세지만 전년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해당 어종도 중국을 비롯하여 각국의 매입 수요가 강해져, 고가 추세를 보인다.

일본 재무성 통계에 따르면 1월 냉동 살오징어류(일렉소오징어, 남미 대왕오징어류 등 포함) 수입량은 전년도 동월 대비 13% 감소한 5,506톤이다.

* 출처: 미나토신문, 2025년 3월 17일자



페루, 새로운 오징어 어업 규정 도입

지속가능성과 세계 시장 적응에 중점

페루 정부는 2025년 3월 12일, 홈볼트 오징어 조업 규정을 새로이 공포하였다. 이는 어업 관리의 지속 가능성과 어민 이익에 대한 정부의 세심한 관심을 반영한다. 최근 페루는 오징어 수출이 급격히 감소하고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화함에 따라 새로운 규정을 통하여 어업 구조를 최적화하고 자원 보호를 강화하여 페루산 홈볼트 오징어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

페루는 세계 최대의 홈볼트 오징어 생산국으로 오랫동안 세계 시장 판매 물량의 절반을 차지해 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페루의 오징어 가공 산업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였고, 수출 시장의 불안정성은 전체 생산 체인에 악영향을 제공하였다. 아르헨티나와 인도네시아 같은 국가의 어획 및 가공 능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페루의 시장 점유율은 감소하였다. 또한 중국, 일본, 한국 등 주요 수입국들이 구매 전략을 조정하면서 페루의 수출 상황은 낙관적이지 않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선단이 기존 어업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불법 어업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자원 이용의 지속 가능성 및 페루의 국제적 위신에도 악영향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한 페루 정부는 어업 관리 방식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기로 하였다. 새로운 규정은 앞으로는 영세한 소규모 어선만 홈볼트 오징어를 어획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시에 생태 환경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어구는 채낚기만 허용된다. 이 방법은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이 없으며, 어

획물의 품질을 보장하여 세계 시장에서 페루 오징어의 경쟁력을 높인다. 또한 페루 정부는 자원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 어선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여 홈볼트 오징어를 잡기 위해 페루 해역 입항을 금지한다. 동시에 페루는 합법적으로 공해에서 조업할 수 있도록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SPRFMO)에 선박등록을 적극 추진하여 어업 발전 기회를 확대하려 한다.

새로운 규정은 어업 방식 개혁 외에도 모든 어업 활동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보다 현대적인 규제 시스템을 구축한다. 정부는 모든 어선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어업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선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모니터링 시스템(SISESAT)을 도입 예정이다. 또한 페루산 오징어의 세계 시장 품질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어획부터 가공, 판매까지 전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산물이력추적시스템(SITRAPESCA)도 추진한다. 이를 통하여 페루 어업의 관리를 개선하는 것과 함께, 세계 시장에서 페루 오징어 제품의 인지도를 향상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페루 정부는 새로운 규정 시행에 있어 페루 국내 시장의 안정성과 어민 이익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페루 정부는 국내 시장 공급을 보장하며 페루의 식량 안보 보장을 우선하기로 하였다. 동시에 수산물을 가공하는 모든 업체는 위생 인증을 취득하고 오징어 가공품이 페루 및 국제 표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보증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



는 페루 소비자가 고품질의 수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뿐만 아니라 페루 수산물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한다. 또한 페루 생산부(PRODUCE)는 어업 활동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규정을 위반하는 어선이나 회사는 높은 벌금 부과 또는 어업허가 취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새로운 규정 시행은 페루 수산업과 세계 오징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페루의 현지 영세 어민은 대형 어선의 조업이 금지됨에 따라 흠볼트 오징어 자원에 독점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소득 수준이 높아질 것이다. 동시에 엄격한 관리 시스템을 통해 남획을 방지하여 자원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정부는 어선 등록 시스템 등록 시행과 최신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대규모 자본 투자가 필요하다.

세계 시장의 관점에서, 새로운 규제가 도입되면 단

기적으로 오징어 공급이 감소하여 세계 시장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특히 스페인, 이탈리아 등 오징어 소비량이 많은 국가는 새로운 공급처를 찾아야 하며, 오랫동안 페루산 오징어에 의존해 온 중국, 일본, 한국 등의 국가도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등으로부터 구매를 확대해야 한다.

페루는 상업 어업을 제한하고, 자원 보호를 강화하고, 산업 현대화를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의 성공적인 이행은 여전히 조치의 효과성, 자금 조달 및 시장 적응에 달려 있다. 향후 페루의 수산업 발전 방향은 지속 가능성과 시장 적응에 더 중점을 둘 것이며, 이러한 변화의 효과 발생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 출처: Fishretail, 2025년 3월 28일자

트럼프, 포클랜드에 41% 관세

“아르헨티나 침공 이후 최대 위협” 주장

영국 자유민주당 대표 에드 데이비는 트럼프 대통령이 포클랜드 제도의 대미 수출품에 41%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후 총리에게 포클랜드 주지사 면담을 요청하였다.

포클랜드 제도는 2023년에 약 2,740만 달러의 상품을 미국에 수출하였는데, 대부분 이빨고기로 트럼프의 관세로 인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데이비 대표는 “트럼프의 무역 전쟁은 아르헨티나의 침공 이후 포클랜드 주민들이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영국 정부는 포클랜드를 포함한 모든 곳에서 영국 시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였다.

데이비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포클랜드에 최고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터무니없는 침략 행위이다. 총리는 포클랜드 주지사를 다우닝가에서 열리는 긴급회의에 초청하여 포클랜드 주민들의 일자리와 사업을 보호하고 반격할 방법을 논의해야 한다. 또한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 포클랜드 제도의 이익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 출처: MercoPress, 2025년 4월 7일자



세계 흰살생선 어획량·공급량 감소 추세

명태·대구 수출 가격 상승

러시아 어업자원공사에 따르면 2월 해외 시장에서 러시아 대구의 판매 가격은 미국으로 배송되면서 kg 당 가격이 7.2달러를 기록하며 한 달 동안 24.1% 증가, 전년 대비 65.9% 증가하였다. 한편, 명태 가격은 kg당 1.4달러로 한 달 동안 13.8% 증가, 전년 대비 47.6% 증가하였다. 해덕 가격은 3.16달러로 한 달 동안 1%, 전년대비 27.4% 상승하였다.

가격 상승은 공급량 감소로 인한 것으로, 외국 항구에서의 하역량은 5.3% 감소한 23만 8,600톤, 러시아 항구에서는 6% 감소한 31만 7,100톤을 기록하였다. 대구 어획량은 4.8%, 명태는 악천후로 인해 6% 감소하였다.

세계 대구 어획량은 감소 추세이며, 러시아는 노르웨이와 함께 허용 어획량을 25% 감소하며 가격이 상승하였다. 러시아 국내 대구 도매 가격은 kg당 470~570루블(5.6~6.8달러)까지 상승하였다. 가공

업체는 수출업체와 원자재 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물류비와 세금으로 인한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러시아수산무역협회 전무인 알렉산더 포민은 “대구의 경우 세계 대구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바렌츠해의 어획량도 크게 감소할 것이다. 쿼터가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어획량이 작년보다 훨씬 적을 것이 분명하여 가격은 이미 상승하고 있다. 모든 대구 시장에서 대구 부족 현상이 공통으로 발생하여 러시아 국내 시장의 가격은 2배나 상승하였다. 하지만 앞으로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명태의 가격 변화는 아직 명확하진 않으나, 대구의 영향으로 명태의 가격도 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물량이 유입되는 4월에는 명태 가격이 일정 수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하였다.

* 출처: Kommersant, BFM.RU, 2025년 3월 26일자

3월 17일까지 40만 톤 러시아 항구로 운송

명태 생산량 지난해 대비 10% 감소

3월 17일까지 러시아는 115만 2,200톤을 어획하였다(작년 대비 7.4% 감소). 이중 극동 수역 어획량의 거의 85%를 차지하였다.

주요 어종별 어획량은 다음과 같다:

- 명태 74만 1,900톤(작년 대비 9.5% 감소);
- 태평양 청어 14만 700톤(14.1% 증가);
- 대구 8만 1,500톤(4.8% 감소);
- 해덕 1만 1,600톤(21.6% 감소);
- 유럽 청어 1만 4,100톤(1.4% 증가);

- 발틱 청어 6,700톤(6.3% 증가);
- 유럽 멸치 1만 900천 톤(25.3% 증가);
- 청어류 1만 9,300톤(27% 증가);

수산물 생산량은 76만 5,500톤을 생산하였으며 이는 2024년보다 6% 감소한 수치이다. 이중 약 40만 4,000톤의 제품이 러시아 항구로 운송되었다고 전러시아어업 및 수출업협회는 보고하였다.

* 출처: Korabel.ru, 2025년 3월 21일자



美 원료 사용 아시아산 명태 필릿, 관세 혼란 확대 관세 부과 여부 놓고 의견 분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새 관세 정책 발표 이후, 미국산 원어를 해외 국가의 공장에서 가공한 후 미국 시장에서 완제품으로 판매하는 미국 수산업체들의 미국 관세청에 대한 문의가 속출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관세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나, 관세가 전면 적용된다는 주장도 있으며, 혹은 더욱 복잡한 공식을 통하여 관세율이 적용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 의견을 제기한 모든 관계자는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였다.

관세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한 미국 수산 대기업 임원은 “(이러한 품목이 관세의 예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 생각에 이 문제는 실질적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어떤 물품의 생산이 2개국 이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물품의 생산, 제조가공 과정을 통해 당초 원료의 성질을 본질적으로 변형하여 새로운 물품으로 변화시키는 활동이 일어난 당해국을 원산지 인정하는 원칙을 의미함)에 따라 결정되는 원산지 규칙에 달렸다. 그러나 최종적인 판단은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베트남산 수산물도 이제 미국 관세 46%에 직면하게 되었고, 인도네시아산 모든 제품은 32% 관세가 부과된다. 중국산 수산물은 기존에 이미 45%의 관세가 적용되었으나, 이제 34%의 관세가 추가 적용된다.

이 3개국은 미국 수산업체가 미국 시장에 완제품으로 판매하기 전에 미국산 원어를 가공하는 국가이다.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14257호)과 그에 따른 미국 관세청 화물시스템메시지서비스(CSMS)의 지침(64649265호)에 따르면, 원자재를 외국으로 보내어 변형한 후 다시 미국으로 수입하는 상품에는 관세가 면제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

해당 지침의 9903.01.34에 따르면, “품목 가치의 최소 20%가 미국이 원산지일 경우, 미국산 내용물은 상호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호관세는 비(非)미국산 내용물에만 적용된다.”

‘Olsson Frank Weeda’ 로펌의 수석 변호사이자 무역 전문가인 제시카 리프킨은 관세청의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지만, 복잡한 접근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분석하였다.

리프킨은 “내가 해석한 대로라면, 수입 시에는 수입 품목의 모든 세관 가격을 제시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수입되는 품목의 모든 거래 가격이 포함된다. 원료 명세서, 해당 품목을 만드는 데 사용된 부품 비용, 가공 비용 등 무엇이든, 거기에 더해 이윤까지, 이 모든 것이 공급자의 추가가격이 된다. 여기서 미국산 원료를 제외하고 남은 부분에 대한 관세를 납부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였다.

리프킨은 예를 들어 업체가 중국에서 수산물 파이



같은 것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평가하는 것이 보다 쉬운 편이라고 말하였다.

“제품에서 미국산 수산물 가격만을 제외하면 된다. 확실하지는 않다. 그렇지만 여전히 가공 가치에만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관세청의 지침은 수입자가 수입과 관련된 양식에 별도의 항목을 포함해야 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하나는 상품의 미국 원산지 부분에 대한 가치이고, 다른 하나는 품목의 미국 외 원산지 부분에 대한 가치이다.

이러한 접근 방식이 미국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이해하기 좋은 사례로는 미국에서 생산되어

중국에서 주로 가공되는 알래스카 명태가 있다.

알래스카 명태는 2025년 1월 중국 수입 시 톤당 1,749달러였다. 2025년 2월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냉동 알래스카 명태의 가격은 톤당 3,484달러이다. 여기에는 약 1,735달러의 차이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수개월 동안 발표한 2차례의 10% 관세와 새로운 34%의 관세를 모두 합치면 총 54%의 관세가 적용된다. 이렇게 계산한다면 알래스카 명태는 중국에서 가공되어 미국으로 재수입될 경우 톤당 약 936달러의 관세가 적용된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5년 4월 7일자

러, 3월 16일까지 명태 74만 2천 톤 어획

기상 악화 지속으로 명태 어획 저조

러연방수산청 조업감시센터에 따르면 3월 16일 기준 74만 2천 톤의 명태를 어획하였다. 이 중 57만 톤은 오호츠크해에서 어획되었으며, 모두 79척의 선박이 조업 중이다.

연초 이후 극동 수역의 대구 어획량은 3만 2,600톤으로, 오호츠크해에서 조업하는 선박은 8척이다.

청어 조업은 긍정적으로 오호츠크해 북부 수역에서 12만 2,700톤을 어획한 것을 포함하여 모두 14만 700톤(지나해 같은 기간 대비 114% 증가)이 어획되었으며 조업선은 모두 4척이었다.

오호츠크해 조업 수역에는 모두 23척의 운반선이 있다. 연해주 수산물 보관 창고에는 모두 1만 7,500톤이 보관되어 전체 보관량의 33%를 보관

하고 있다. 항구로 접근하는 조업선은 모두 21척으로 이 선박에는 4만 3,000톤의 어획물을 적재하고 있다.

이번 주에도 조업 어장에는 어려운 기상 조건과 불안정한 유빙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수산청에서는 비상사태를 예방하고 승무원의 안녕을 지키기 위해 선주와 선장에게 지침을 제공한다.

오호츠크해 첫 조업시기는 1월부터 4월까지로 이 시기에 연간 명태 생산량의 80%가 어획된다. 오호츠크해 조업 조직과 조업 진행 관련된 문제는 러연방 수산청에서 즉시 해결하고 있다.

※ 출처: 러연방수산청, 2025년 3월 18일자



오호츠크 명태 어업 긍정적으로 변화

첫 번째 명태 조업 종료

4월 7일까지 러시아 조업선은 동사할린 하부 수역을 포함한 오호츠크해에서 84만 7,100톤의 명태를 어획하여 총허용 어획량의 73.3%를 소진하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어획량은 81만 8천 톤으로 총허용 어획량의 75.6%를 소진하였다.

명태 조업은 대형어선 36~49척, 중형어선 17~22척 등 53~71척이 조업하였다. 오호츠크해에 광범위한 고기압이 확산하였다. 조업선은 통행하기 쉬운 유빙에 둘러싸여 조업하였다.

북 오호츠크해 하부수역에서는 선박의 지속적인 운항으로 인하여 조업 어장이 확대되었다. 31~48척의 대형 어선과 16~21척의 중형어선은 각각 일일 평균 183.8톤과 72.3톤을 어획하였다. 이 수역의 어획량은 32만 6,400톤(TAC의 90.2% 어획)을 기록하였으며,

지난해 같은 시기에는 30만 5천 톤(89% 어획)을 어획하였다.

서캄차카 하부수역에서는 7척의 대형어선과 2척의 중형어선이 일일 평균 척당 320.1톤과 134.2톤의 어획을 기록하며 겨울-봄 조업 어기를 종료하였다. 올해, 이 수역에서 모두 21만 9,700톤(60.7% 어획)이 어획되었으며, 지난해에는 30만 100톤(87.6% 어획)을 어획하였다.

3월 31일 캄차카-쿠릴 하부수역에서는 9척의 대형어선과 2척의 중형어선이 첫 번째 어기를 마무리하며 척당 일일 평균 117.9톤과 103.5톤을 어획하였다. 이 수역 총어획량은 28만 1,100톤(99.9%)으로 전년도 20만 1천 톤(75.4%)에 비해 증가하였다.

* 출처: Fishnews, 2025년 4월 9일자

러 2026년 TAC, 365만 톤으로 늘릴 예정

6만 1,100톤 증가 권고

러시아연방수산청은 2026년 러시아 전체의 총허용 어획량(TAC)을 늘릴 예정이다.

“2026년 TAC는 6만 1,100톤이 증가하면서 최대 365만 톤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최근 과학 조사 결과, 명태와 청어를 비롯한 여러 어종의 자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러시아 어민은 생산량을 늘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러연방 수산청장은 말하였다.

명태와 태평양 청어 TAC는 각각 1.3%, 17.9%

증가한 240만 톤, 53만 4,900톤으로 설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구는 13만 4,900톤, 오징어는 11만 톤, 태평양 연어는 12만 9,000톤을 2026년에 어획할 수 있게 된다. 왕게와 대게의 TAC는 각각 13.5%, 2.7% 증가 예정이다.

모든 제안은 연방수산청 과학위원회 회의에서 검토되었으며, 2026년 총허용 어획량은 수정 사항을 고려하여 최종 확정될 것이다.

※ 출처: Portnews, 2025년 3월 17일자



한국, 2월 냉동 명태 수입량 감소

평균 단가 상승으로 수입 금액 증가

한국의 올해 두 달간 수입한 냉동 명태는 2만 4,370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만 5,500톤보다 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냉동 명태 수입 감소는 사실 러시아로부터의 구매 감소로 이어진다. 명태의 대부분 물량은 러시아로부터 공급되고 있다. 2월 말 기준 냉동 명태의 한국 공급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99.52%였고, 나머지 0.5%는 미국으로부터 공급된다. 러시아에게 한국은 냉동 명태의 주요 시장이다.

2025년 2월 한 달 동안 한국으로 수입된 냉동 명태는 총 1만 3,036톤으로 2024년 같은 기간 수입된 1만 5,599톤보다 16% 감소하였다. 올해 총수입량은 2만 4,373톤으로 전년도 2만 5,500톤 대비 4% 감소하였다. 이는 총 15만 2,793톤에 달하는 전체 수산물 수입량의 16%에 해당한다.

국가별로는 러시아가 냉동 명태 수입량의 99%(2만 4,257톤)를 차지하였고, 미국이 116톤을 공급하였다. 국가별 수입 가격은 러시아산 명태가 kg당 1.04달러, 미국산 명태가 1.44달러를 기록하였다.

2025년 2월간 냉동 명태 수입 총액은 1,379만 달러로 2024년 같은 기간의 1,533만 달러보다 10% 감소하였다. 그러나 올해 누계 수입액은 전년도 2,524만 달러에서 1% 증가한 2,548만 달러에 달하였다.

명태 평균 수입 가격은 지난해 kg당 0.99달러에서 6% 상승한 kg당 1.05달러를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냉동 명태 수입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평균 수입 가격은 상승하여 총수입액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월의 공급량 감소는 1월의 공급량 증가를 무력화하였다. 당시 러시아에서 2024년 1월보다 4% 더 많은 냉동 명태가 공급되었다.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공급되는 생선 공급량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동시에 2월 국내로 수입된 냉동 명태의 평균 가격은 6% 상승하여 총공급가는 지난해 2월에 비해 1% 증가하였다.

전문가들은 한국 시장에서 냉동 명태 가격이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일부 사이즈의 가격은 상승하고, 일부 사이즈는 감소하였다. 3월 초 냉동 명태의 가장 일반적인 사이즈인 8통의 가격은 2월에 비해 7.6% 상승하였지만, 1월보다는 1.4% 하락한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국제 무역 조건에서 수요와 가격의 변화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수산물 수입량과 가격의 변동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하였다.

* 출처: Fishnet, 2025년 3월 18일자,
Dalekayaokraina, 2025년 4월 1일자



美 명태 연육 2025년 A시즌 가격 상승 전망

상·중급품 50엔 상승 예상

일본 어육 제품의 주원료인 미국산 명태 냉동 연육의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A시즌(전반기) 일본 가격은 2024년 B시즌(후반기)과 비교하여 상·중급품이 kg당 50엔 전후, 하급품이 15~30엔 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 미국 베링해·알류산열도, 알래스카만 명태 TAC는 총 158만 495톤으로, 전년도 대비 4.3% 증가하였다. 3월 22일 시점 미국 명태 연육 생산량은 6만 1,202톤으로 전년도 동기 대비 1.2% 증가하였으나, 전년도 대비 14.7% 증가하여 5만 6,399톤을 기록한 필렛 생산량에 비하면 증가폭이 크지 않다. 생산자 측은 2024년처럼 연육 대비 수익성이 좋은 필렛 생산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2024년 미국의 명태 연육 생산량은 17만 478톤으로 전년도 대비 13% 감소였다. 2024년의 TAC 자체는 3% 증가하였으나 연육 생산은 침체되었다.

2024년 A시즌의 연육 가격은 2023년 B시즌 대비 상급품이 10엔, 하급품이 약 20엔 상승하였다. 2024년 B시즌은 A시즌 대비 각 등급 모두 60엔 전후로 상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5년 A시즌에도 가격 상승 추세는 유지되었다. 특히 상·중급품은 수급 균형으로 인하여 가격 상승폭이 큰 것으로 추측된다. 하급품 중에서도 상급에 속하는 쪽은 가격 상승폭이 크고, 보다 하급으로 내려갈수록 가격 상승폭이 적다고 소식통은 전하였다.

한편, 명태 연육 생산국 대열에 합류한 러시아는 최근 생산량 증가가 계속되고 있다. 일본으로의 수입량도 증가 기조에 있어, 2024년은 1만 8,071톤으로 전년대비 1.5배로 증가하면서 역대 최다치를 기록하였다. 2025년 1~2월 생산량 누계는 2,645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배를 기록하였다.

* 출처: 미나토신문, 2025년 4월 2일자

러 어업 2024년 일본행 명태 연육 수출, 46% 증가

총 1만 8,070톤

2024년 일본의 연육 수입량은 총 20만 2,060톤으로, 전년도 대비 2% 감소하였으나, 러시아산의 수입은 46% 증가한 1만 8,070톤이다.

세계 최대의 명태 연육 생산국인 미국의 경우, 연육이 필렛에 비하여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인하여 2024년에는 생산량이 감소하였다.

반면 러시아는 연육 시장에서의 지위 강화를 위

하여 일관되게 힘을 쏟고 있다. 러시아 어업은 2021년 이후 연육 생산이 성장하며 2024년에는 7만 톤을 돌파하였다.

러시아 어선선주협회는 2028년에 연육 생산량 16만 톤 돌파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출처: 홋카이도 가산면, 2025년 4월 2일자



中 맥도날드, 러시아산 명태 수요 증가

유럽·영국 맥도날드 수요 감소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의 러시아산 명태 필렛 수입량은 전년도 대비 104%나 증가한 1만 9,025톤이다. 맥도날드, KFC 중국 등이 가격의 이점을 누리고 있다.

맥도날드는 러시아산 딥스킨(껍질, 지방층 제거) 필렛 제품을 매입하지만, 러시아산 제품의 수량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미국산도 매입한다.

익명의 시장 소식통은 “사실 중국 최대의 구매자는 KFC이며, 이들은 PBO(가시제거) 필렛을 사용한다.”라고 말하였다.

미국산 딥스킨 명태 필렛 생산량은 2024년에 감소 추세로, 유럽 맥도날드에서의 매출 감소가 그 원인으로 추측된다.

미국산 딥스킨 명태 필렛의 생산량은 2024년에 4만 5,080톤으로, 전년도 대비 23% 감소한 수치이자 2014년 이후 최저치이다. 감소의 원인 중 하나는 맥도날드의 이스라엘 지지로 인한 불매 운동의 영향이라고 소식통은 전하였다.

여러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산 딥스킨의 2025년 생산량은 2024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맥도날드의 수요가 급감할 가능성이 작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유럽에서 대서양 대구의 가격이 급등하였기 때문에 일부 유럽 구매자들의 딥스킨 수요가 증가할 수도 있다고 예상하였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5년 3월 19일자

러 2025년 명태 고차 가공 제품 생산량 17% 증가

7만 6천 톤 규모

연초부터 명태 필렛, 민스 및 연육과 같은 명태 고차 가공 제품의 총생산량이 2024년 같은 기간에 비해 17% 증가하여 7만 6,000톤에 달했다고 러시아 명태어업협회는 밝혔다.

러시아는 2년 연속 명태 필렛의 생산량을 줄이고, 이 제품의 주요 공급 방향을 러시아 국내 시장으로 하였다. 연초부터 필렛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7% 증가하였으며, 연육은 41% 증가하였다.

2024년 러시아 어업자는 전년도 대비 2% 증가한 총 199만 8,300톤의 명태 어획 기록을 세웠다.

전국 어획량에서 명태가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41%까지 증가하였다. 세계 시장에서 러시아의 주요 경쟁국인 미국은 135만 톤을 어획하는 데 그쳤다. 명태 제품의 러시아 국내 시장 공급량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명태 필렛 공급량은 전년 대비 2.6배 증가하여 4만 6,000톤을 초과하였으며 명태 연육은 1.9배 증가한 2만 1,000톤까지 증가하였다. 명태 민스의 경우 2023년 대비 73% 증가한 최대 8,000톤까지 성장하였다.

※ 출처: 러시아명태어업협회, 2025년 2월 25일자



태평양 대구 가격, 비용 상승과 수요 증가로 상승 지속

2월 중순 대비 약 11% 상승

냉동 H&G(머리, 내장 제거) 연승 태평양 대구 가격은 일부 업계 관계자들이 경고한 어업 비용 상승 등으로 인하여 최근 수개월간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장 관계자에 따르면, 연승 H&G 태평양 대구 3lbs 이상의 알래스카 더치만에서의 가격은 4월 첫째 주 기준으로 파운드당 3.05 달러(톤당 6,724달러)이다. 해당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월 중순 동일 어종의 가격은 파운드당 2.75 달러(톤당 6,063달러)로, 2개월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약 11% 상승한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소식통도 가격이 파운드당 3달러 이상이라고 확인하였다.

해당 소식통은 “H&G 태평양 대구 가격은 일부 시장에서 파운드당 3달러 이상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가격이 지금 수준까지 오르기 전에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고 있으나, 충분한 재고만 있다면 파운드당 3달러 이상에도 판매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재고가 너무 많이 팔려서 가격 상승 기회를 활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하였다.

껍질, 가지 제거 냉동 태평양 대구 필렛의 가격도 이번 주에 상승하였다. Undercurrent News의 북미 지역 가격 부문 책임자인 Lorin Castiglione은 “태평양 대구는 미국 쿼터 감축, 자국 어획량 제한, 그리고 러시아 공급의 지속적인 배제로 프리미엄 수요가 지속되면서 견고한 거래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수요는 안정적이지만 지나치게 공격적이진 않다. 이는 근본적인 수요 약화보다는 보수적인 구매

전략을 반영하는 것이다. 만약 비용이 계속 상승한다면 2분기에 가격이 추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였다.

첫 소식통은 현재의 가격이 최고점이라고 언급하였다. 해당 소식통은 “사순절이 끝나가기 때문에(사순절은 기독교의 금육 기간으로, 이 기간 동안 대구를 육류의 대체제로 섭취하는 경우가 많음), 태평양 대구 가격이 현재 수준에서 지나치게 상승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가격을 고수할 계획이며, 지나친 혼란을 유발하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이 이상으로 가격을 올릴 생각은 없다.”라고 응답하였다.

두 번째 소식통은 현재 태평양 대구 가격을 좀 더 광범위한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해당 소식통은 “미국은 2022년에 금리를 억제하고 정부 차원에서 대규모 통화를 발행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인위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반면에 현재 상황은 좀 더 근본적인 수요-공급 원리로 인하여 가격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하였다.

첫 번째 소식통은 최근 어획량이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제품이 많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말하였다. 태평양 대구의 소매 가격은 여전히 크게 변하지는 않았으나, 소매 이윤이 증가하면서 도매 가격은 상승 중이라고 두 번째 소식통은 언급하였다. 해당 소식통은 수요가 여전히 자신이 공급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고 말하였다.

해당 소식통은 태평양 대구 어업회사의 직면한 과제가 어획물 판매보다도 현재의 인플레이션 및 금리



상황에서 조업을 운영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해당 소식통은 경제적 변화가 2023년 업계가 어려움을 겪은 주요 요인이라고 말하였다.

해당 소식통은 “가격은 높은 편이지만 인플레이션을 적용하면 기록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수준이다”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어업 비용 문제는 끊이지 않는다고 그는 말했다. 대구 어획량 1톤당 연료비만 해도 지난 2년 동안 두 배로 뛰었다. 앞으로 선박 교체가 필요할 때, 그 비용은 막대한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소식통은 “다수의 예상에 따르면 선박 교체 시 새 선박 가격은 10년 전 가격의 약 두 배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가격이 상당히 올랐지만, 태평양 대구는 대서양 대

구에 비하면 여전히 경쟁력 있는 구매 대상이다.

두 번째 소식통은 “태평양 대구 가격은 여전히 저렴한 편으로, 크기에 따라 대서양 대구 가격보다 약 10~20% 정도 저렴하다”라고 말하였다.

대서양 대구 가격 또한 작년 초부터 쿼터 감축과 미국의 러시아산 수산물 금지 조치로 꾸준히 상승하였다. Undercurrent 가격 포털에 따르면, 이중 냉동(double-frozen, 어획물을 냉동 보관 후 해동하여 가공한 다음 재냉동한 제품) 노르웨이산 바렌츠해 H&G 대구의 가격은 2024년 1월 톤당 4,200달러에서 이번 주 톤당 7,600달러로 상승하였다. 러시아산 이중 냉동 바렌츠해 H&G 대구도 비슷한 상승세를 보였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5년 4월 7일자

러, 수산업 100척 이상의 현대식 선박 건조 계획 생산 능력 80%, 고차 가공량 50% 증가 목표

러연방 수산청장은 수산생물자원 어업 및 보존에 대한 연방법 제정 20주년을 맞이하여 투자 쿼터 제도가 좋은 결과를 창출하고 있음을 국회 청문회를 통해 알렸다.

2단계 투자 쿼터 제도로 선박 31척(어선 4척, 운반선 4척, 제조업선 23척), 물류 단지 4곳(대형 3곳, 소형 1곳), 가공 공장 11곳(대용량 9곳, 소형 2곳)을 건설할 계획이다. 이미 체결된 계약에 따른 총투자액은 약 1,392억 루블에 달한다.

현재까지 2단계 투자 쿼터 제도를 통하여 제조업선 1척과 공장 2곳의 건설이 이미 완료되었다.

세스타코프 수산청장은 “투자 쿼터 제도는 러시아가 처음으로 도입한 것으로 다른 나라에서 이와 같은 제도가 없다”라고 강조하였다. “매우 효

율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차세대 선박이 건조되고 있다. 이 선박은 어획물을 100% 선상에서 가공 처리할 수 있으며, 연간 최대 6만 톤의 완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최근에는 고차 가공 제품 생산이 15%에서 32.5%로 증가하였으며 2030년까지 50%까지 증가할 예정이다.”라고 청장은 말하였다.

1단계 투자 쿼터 제도로 선박 39척(어선 23척, 계잡이 어선 16척)과 25곳의 어류 가공 공장이 이미 건설되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혁에 따라 주요 조업 구역의 생산 능력을 80%까지 향상하고 운반선, 항만 서비스 및 안정적인 물류 시스템을 포함하는 현대적인 수산 산업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 출처: Fishportal, 2025년 3월 20일자



러, 투자 쿼터 사용 기간 20년으로 연장 진행

각종 제재와 제한으로 비용 증가와 이익 감소 경험

투자 약정에 따라 부여 된 수생 생물 자원 추출 할당량의 사용 기간을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러시아 국가 두마(하원)에 제출되었다.

“수생 생물 자원의 어업 및 보존에 관한 연방법 개정안”은 투자 목적으로 수생 생물 자원을 어획할 수 있는 권리를 15년이 아닌 20년으로 제공한다.

개정안에는 “1, 2단계 투자 프로젝트를 시행할 때 투자 기업들은 조선 기업의 업무에 대규모 차질이 발생하고 계획된 사업 조건이 급격히 변화하여 기존 규정 변경 필요를 설명하였다.

가공 생선 및 계 제품의 주요 수출 시장(미국, EU 등)이 러시아 생선 및 수산물 공급을 금지하고 제한하여 수출 가격과 수입이 심하게 감소하였다. 또한

선박 및 관련 장비 공급에 대한 제재와 제한으로 인하여 선박 건조 소요 기간은 최대 10년으로 비용은 20% 이상 증가하였다.

선박 인수 지연과 비용 증가는 투자 회수 기간을 늘리고 해양 생물 자원 어획 기회, 어획물 처리와 업계의 경제적 수익을 제한하였다. 러시아 은행의 기준 금리가 급격히 인상되면서 투자 대출 비용이 여러 배로 증가하여 투자회사의 부담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제조업 회사의 영업이익은 30% 감소하였으며,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어업 회사의 영업이익은 40% 감소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 출처: Portnews, 2025년 4월 4일자

러시아, 벨라루스에 10년간 어획 권한 제공

어류 가공은 러시아 기업이 맡아

러시아는 벨라루스에 향후 10년간 배타적경제 수역에서 어획할 권리를 부여할 예정이다. 어획물 가공 등 처리는 러 기업이 이행할 예정이다.

러시아는 벨라루스에 매년 다음과 같은 쿼터를 할당한다: 베링해수역에서 최소 3만 톤의 명태와 1,000톤 이상의 청어, 오호츠크해수역에서 최소 2만 톤의 명태, 바렌츠해수역에서 최소 9,000톤의 대구와 해덕, 바렌츠해에서 최소 100톤의 대구, 발트해수역에서 100톤 이상의 청어, 800톤 이상의 청어류가 할당될 예정이다.

이러한 쿼터 사용 허가는 벨라루스-러시아 합작 기업에 발급된다. 동시에 생산자는 어획물을 러시아 영토로 운송하고 하역해야 할 의무가 있다. 어획물 및 선박 서비스 처리의 우선권은 러시아 항만 인프라가 소유한다.

한편,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은 극동 수역에서 약 2만 톤의 명태와 5,000톤의 청어 어획 쿼터를 제공하는 유사한 협정이 존재한다.

※ 출처: Kam24, 2025년 3월 20일자



러시아, 중국에 명란 공급 두 배 증가 예정

명태 어획량 2% 감소

러시아 수산업자는 2025년에 중국에 명란 공급을 최대 1천 톤까지, 2~3년 이내에 5천 톤까지 두 배로 늘릴 계획이다. 첫 번째 주요 거래는 4월 8일부터 10일까지 부산에서 열리는 경매로, 중국 바이어가 처음으로 참석하는 경매에서 체결될 예정이다.

4월 1일까지 러시아의 명태 어획량은 2% 감소한 96만 4,000톤을 기록하였고, 명란 생산량은 1.5% 감소한 3만 톤을 기록하였다. 러시아 어선주협회는 자원 문제가 아닌 기상 조건에 따라 어획량이 감소하였다고 간주하였다. 이들의 예측에 따르면 연간 어획량은 190~200만 톤 수준으로 예상하였다.

2024년 명란 수출량은 총 3만 7,000톤(1억 9,400만 달러)으로, 가격 하락으로 인하여 매출은

21% 감소하였다. 주요 시장은 일본(56%)과 한국(42%)이지만 수요가 감소하고 있으며, 중국은 새로운 유망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러시아 명태어업협회는 프리미엄 제품으로 자리잡은 중국에서 명란 홍보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중국 정부는 2030년까지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을 22.9kg에서 29kg으로 늘릴 계획이다.

러시아에서는 명란 매출이 지난해 대비 0.9% 성장을 기록하며 느리게 증가하고 있으나, 대구알 소비는 7.5% 증가하였다. 현재 러시아 국내 시장에는 저급 어란이 공급되고 있으나, 고급 어란은 수출되며 아시아 지역에서는 건조 및 훈제 형태로 공급된다.

* 출처: Fishery.ru, 2025년 4월 4일자

전문가, 냉동 명태 원가 계산

명태 소비자 가격의 60%는 어민의 생산 비용

분석가들은 H&G 명태의 원가 비용을 계산하였다. 유통업체의 수익성은 최종 비용의 4%였다.

어업연합 분석 센터는 냉동 명태의 원가 구조를 제시하였다. sfera.fm社에서 검토한 이 분석은 2024년 11월 러시아 중부 지역의 명태 평균 소매 가격인 kg당 235루블을 기준으로 하였다.

▽비용의 58%는 생산 비용(138루블) ▽2%는 모스크바까지의 물류비(28루블) ▽14%는 포장 비용(32루블) ▽4%는 물류비용(10루블) ▽4% 미

만은 유통업체의 이윤(9루블) ▽8%는 소매 체인 가격 차액(18루블)

전문가들은 또한 3월 중순 현재 명태 어획량이 약 74만 톤으로 작년 수준보다 10% 낮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선박의 명태 필렛 생산량은 작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명태 민스 생산량은 25% 증가하였다.

※ 출처: Sfera, 2025년 3월 24일자



러 중형 트롤 어선 출항 착수

바렌츠해에서 조업 예정

트롤 조업선 현대화 투자 규모는 7억 루블(약 8백만 달러)에 달하였다.

러시아 아르한겔스크 지방 정부는 중국 조선소에서 현대화된 중형 트롤 어선 “꿀로이”가 조업 출항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롤 어선 “꿀로이”의 현대화 건조는 중국 다렌의 조선소에서 3년 이상 진행되어 지난여름에 완공되었다. 이 선박은 리발로베즈꼬바 꼴호자(어업 농장)의 주문으로 현대화되어 지난 2024년 8월 무르만스크 어항에 입항하였다.

아르한겔스크 지역 주지사 알렉산더 쾰블스키는 트롤 선박의 장비를 최대한 자동화하여 수작업을 최소화하였다고 말하였다.

또한 선내에는 통조림 생산 공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생산 능력은 하루 최대 1,500개이다. 자동화 장

비를 사용하면 4~5명의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전문가들은 하루 12~16시간 근무가 아닌 8시간씩 2교대로 일할 수 있게 되었다. 공장은 하루 최대 20~25톤의 완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트롤 어선의 개조를 위한 투자 규모는 7억 루블에 달하였다. 이번 주말 출항을 통하여 동 선박은 어획량에 따라 25~30일간 조업이 지속될 예정이다.

이 선박은 러시아 해사 선급(RS)의 등급에 따라 Liao Yu Group의 중국 조선소에서 개별 프로젝트에 따라 건조되었다. 트롤선의 길이는 46.6m, 폭은 10.6m, 화물창 용량은 452m³이다. 동 트롤 어선은 최대 11노트의 속력을 낼 수 있으며, 예상 승무원은 24명이다.

※ 출처: Portnews, 2025년 3월 26일자

러, 양식 어류 생산량 증가

10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

러연방수산청장은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양식을 통한 러시아 국내 어류 제품 생산량은 18만 8,600톤에서 38만 톤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이 부문이 농업 생산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국가 지원 조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법률을 채택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이러한 조

치에는 유리한 대출 및 농업 보험이 포함된다.

또한 어류 사료 생산 공장의 건설 또는 현대화에 대한 25% 보상도 있다. 올해부터 러시아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확대하여 연어류 사육을 위한 양어장 설립 또는 현대화에 대한 지원도 포함하였다.

※ 출처: Fishretail, 2025년 3월 21일자



러, 어업 국가 지원 기준에 대한 접근 방식 개발 수산업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기준 마련

알렉산더 노박 러시아 부총리는 농업부, 수산청, 재무부, 경제 개발부 및 업계에 어업에 대한 국가 지원 기준에 대한 공통 접근 방식을 개발하고 효과적인 적용을 위한 자금 출처를 식별하도록 지시하였다. 이 지침은 금융 부문 및 개별 산업의 지속 가능성 개선에 관한 소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 제공되었다고 러시아 정부 언론 서비스는 보도하였다.

“업계의 참여와 함께 연방 및 지역 당국의 대표와 해당 부문의 책임자는 선박 및 육상 시설 건설에 대한 개별 참여자의 투자를 고려하는 것을 포함하여 어업 및 양식 기업의 안정적인 기능을 보장하기 위

한 지원 조치 적용 기준을 논의하였다.”

안톤 알리하노프 산업통상부 장관과 옥사나 루트 농업부 장관은 어업의 현재 상황에 대해 보고하였다. 그들의 데이터에 따르면 체계적으로 중요한 기업의 상황은 안정적이다.

러시아 은행과 연방 국세청의 정보에 따르면 여러 어업 회사의 재무지표는 신용 자금 조달 비용, 직원 급여 증가, 소매 제품 및 수출 물량 변화의 영향을 받았다.

* 출처: Portnews, 2025년 3월 21일자

러, 연해주 어항의 어획물 회전을 36% 증가 보관 창고의 33% 수준 유지

2025년 초부터 72척의 어업 및 운송선이 운항하고 있다.

2월에 연해주 러연방수산청 어업자원공사의 정박지를 통한 수산물 물동량은 3만 5,800톤에 달하였다. 이는 2025년 1월의 2만 6,300톤보다 36.1% 증가한 수치이다.

올해 첫 두 달 동안 국영 기업의 부두를 통한 수산물 물동량은 6만 2,100톤에 달하였다. 이 기간에 72척의 어선과 운반선이 출항하였다.

현재 극동 수역에서는 오호츠크해 조업으로 한

창이다. 어선은 명태, 대구, 청어를 주로 어획한다. 연해주항구는 정상 운영되고 있다. 해상 어장에서 입항하는 어선의 하역도 중단없이 진행되고 있다. 2월 말 이후 수산물 보관 창고의 보관 용적은 33% 수준인 3만 7,500톤을 보유하며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항구와 어선의 작업을 적절한 수준으로 보장한다고 어업자원공사는 알렸다.

※ 출처: Korabel.ru, 2025년 3월 21일자



러 관계자 “소련의 낮은 생선 가격, 정부 지원이 원인” 식량 인플레이션, 수산업에 기회 될 수 있어

소련의 낮은 생선 가격은 생산 비용을 부분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생산자에게 지원한 수십억의 보조금으로 설명된다. 이는 전 러시아 수산업 기업 및 수출업 협회의 회장인 게르만 즈베레프가 밝혔다.

“값싼 생선”이라는 개념은 소련에만 존재했던 독특한 경제 현상으로, 단기간 존재하였으며 막대한 보조금을 기반으로 생산자가 생산 비용의 일부를 보살폈다. 예를 들어, 상점의 연어 캔은 97 코페이 카에 판매되었으나 생산 비용은 1 루블 60 코페이 카였다.

닭 사육장은 판매 또는 소비 장소에서 400~1,000km 떨어진 곳에 있지만, 수산물은 바다에서 식탁까지 수천 km를 이동하기 때문에, 닭과 생선의 비용을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좁고 때로는 혼잡한 환경에서 1kg의 닭을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은 주요 소비 시장에서 9,000km 이상 떨어진 항구에서 수백 마일 떨어진 수역에서 1kg의 명태를 수확하는 것보다 몇 배나 저렴하다.”

3월 말,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는 이윤이 최대 50%에 달하는 상품 중 수산물을 언급하였다. 그는 반독점청의 자료를 인용하여, 어부로부터 최종 공급업체까지의 유통 과정 중 최대 6개의 중개자를 거치면서 최종 상품 비용이 3.5배 증가하였다고 말하였다.

러연방 통계청에 따르면 러시아 소비자 물가는 2월에 0.81% 상승하였으며 올해 인플레이션은 10.06%에 달하였다. 또한 수산물 가격은 연평균 18.08% 상승하였다.

지난해 가을 발렌티나 마트비엔코 러시아 연방 하원 의장은 높은 생선 가격으로 러시아인이 생선을 구매하기 어렵다고 말하였다. 이에 즈베레프 협회장은 규제 비용, 세금 부담 및 임금 상승, 대출 필요 등 수산업의 위기 속에서 수산업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식량 인플레이션이라고 말하였다.

* 출처: RBK, 2025년 3월 31일자





NPFC, 꽁치 TAC 10% 감축 및 고등어 30% 감축 2025년도 연례회의서 합의

북태평양수산위원회(이하, NPFC)는 2025년 3월 24일부터 27일까지 일본 오사카에서 제9회 연례회의를 개최하였다. 해당 회의에서 꽁치의 어획 한도는 전년도 대비 약 10% 감축되어, 공해에서의 한도는 12만 1,500톤, 일본과 러시아 EEZ에서의 한도는 8만 1,000톤으로 정해졌다. 또한, 자원 상황이 악화하고 있는 고등어의 어획 한도는 전년도 대비 약 30% 감축된 7만 1,000톤으로 정해졌다.

이번 회의에는 연안국인 일본과 러시아, 원양어업국인 중국, 한국, 대만, 바누아투, EU, 그리고 관심국인 미국, 캐나다의 9개국 및 지역이 참석하였다. 회의는 NPFC 의장인 오타 신고 일본 농림수산성 고문의 서두 인사 이후로 비공개 진행되었다. 회의 후에는 일본 수산청 자원관리부의 후쿠다 공심의관이 기자회견을 열어 합의 내용을 설명하였다.

꽁치 자원관리의 경우, 2024년에 자원 수준에 대응하여 TAC를 산출하는 어획관리규칙을 도입하였다. TAC의 변동폭 한도는 전년도 TAC의 10%로 정해졌다.

2024년 12월 과학위원회에 따르면 자원평가 결과 꽁치의 자원 상태가 매우 악화하였다. 이에 따라 2025년 공해 TAC는 전년도 대비 10% 감소한 12만 1,500톤으로 정해졌다. 일본의 한도는 2만 1,087톤이다. 일본과 러시아 EEZ를 비롯한 분포 구역 전체에서의 어획 한도는 전년도 대비 10% 감소한 20만 2,500톤이다.

공해 고등어 어획 한도는 2024년 10만 톤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올해에도 상한 10만 톤으로 정하여 추세를 지켜보자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과학위의 자원평가 결과가 좋지 않았던 점과 연안을 포함한 자원의 악화를 고려하여, 전 국가의 총 어획 한도를 6만 6,740톤(선망어업 5만 8,800톤, 트롤어업 7,940톤), 어기가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EU의 한도를 4,260톤으로 정하여, 총 7만 1,000톤으로 결정하였다.

당초 일본은 과학위가 2023년의 데이터를 일부 활용하여 제시한 매우 엄격한 자원 평가에 근거하여, 2024년 한도에서 절반으로 삭감된 5만 톤의 어획 한도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모든 데이터가 갖추어진 2022년의 평가로 임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어, 약 30% 감축된 7만 1,000톤으로 결정되었다.

일본 수산청 자원관리부의 후쿠다 공심의관은 “꽁치의 어획 한도는 해마다 감축되고 있지만, 자원 상황을 생각하면 아직 충분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래도 한 걸음씩 진전되고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더불어 고등어에 대해서도 “2022년까지의 데이터까지만 반영되었기 때문에, 최근의 어려운 상황이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충분하지 않다. 한층 더 자원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하였다.

한편, 일본은 이번 NPFC 회의에서 처음으로 태평양 정어리에 대한 어획 한도를 제안하였다. 해당 제



안은 지난 3년간 연평균 어획량의 70%를 상한선으로 설정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회원국들은 이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작년의 공해 쫓치 어업에서, 중국은 9월 12일에 국가별로 할당된 한도를 소진하면서 어업을 종료하였다. 또한 대만은 전체 한도의 90%를 소진하면서 10월 12일 어업을 종료하였다.

일본의 2024년 쫓치 어획량은 전년 대비 58% 증

가한 3만 8,695톤이다. 하지만, 이 수치는 최고치를 기록한 2008년의 34만 3,225톤의 10%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내년 연례회의는 4월 14일부터 17일까지 일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UndercurrentNews, 2025년 3월 31일자

NPFC, 실질적인 전채 개혁 채택 26년부터 운반선 옵서버 승선 의무화

어선은 어획물을 해상에서 운반선으로 옮겨 신는 전채를 통하여 오랫동안 조업이 가능하다.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 관할 구역에서는 어획량의 85%가 해상 전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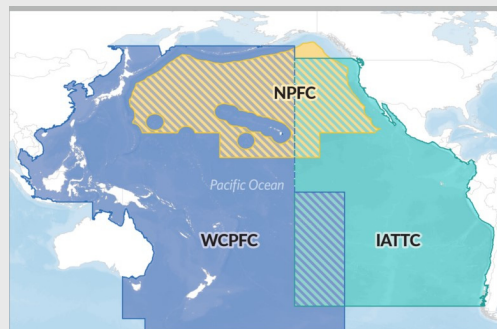
3월 24일부터 27일까지 오사카에서 열린 NPFC 연례 회의에서 관리기구의 9개 회원국은 전채 옵서버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NPFC수역에서 조업하는 모든 운반선은 독립적인 옵서버 승선이 필요하다.

NPFC 전채 옵서버 프로그램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를 통하여 검증된 전채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 및 관리 규칙 준수를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 옵서버는 전채 어종의 시간, 위치, 종류, 양, 전채 상태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예정이다.

NPFC는 전 세계 17개 지역관리수산기구(RFMO) 중 하나이며, 그중 일부는 지리적으로 겹치지만 서로 다른 어족자원을 취급한다. 이들 중 다수는 이미 전채 옵서버 프로그램을 운영하

고 있다.

중국 선단은 강화된 전채 규정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NPFC 수역에서 해상전채에 관여하는 선박의 대부분이 중국 국적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NPFC 관할 수역에서 전채 작업을 한 어선 241척 중 209척이 중국 국적이며, 어획물을 전채한 운반선 43척 중 42척도 중국 국적이었다. 전체 전채 물량 중 중국이 관여한 비중은 96%였다.



〈 태평양 국제수산기구별 관할 구역 〉

※ 출처: Mongabay, 2025년 3월 31일자



베트남 수산물 업계, 미국 관세에 대비

46% 관세 충격 영향

베트남 수산물 수출 및 생산자 협회(VASEP)는 미국이 베트남산 수입품에 대해 최대 46%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후 베트남 정부에 긴급히 호소하였다. VASEP의 공식 서한 46/CV-VASEP은 베트남 수산물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악영향을 강조하고 정부 개입을 제안하였다.

미국의 관세 발표 성명서에서 지목된 약 180개국 중 베트남에는 최고 46%에 달하는 치명적인 관세가 부과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베트남 경제의 주요 부문, 특히 중요한 수산물 산업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베트남의 연간 대미 수산물 수출액은 약 20억 달러로, 전체 수산물 수출액의 1/5을 차지한다. 미국은 베트남의 최대 수산물 시장일 뿐만 아니라 수산업 성장의 핵심 동력이기도 하다. 이 시장은 양식 수산물(새우, 팡가시우스, 조개류, 민물고기)의 70%를 소비하여 수십만 명의 어민의 생계를 지원하고, 어획된 수산물의 30%를 소비한다. 미국은 베트남산 새우와 참치의 최대 수입국이자 두 번째로 큰 팡가시우스 수입국이다.

현재 400개 이상의 베트남 기업이 미국으로 수산물을 수출하거나 수출할 계획이며, 일반적인 배송 방식은 대금을 받을 때까지 배송, 보험, 세금 등 모든 초기 비용을 베트남 기업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제안된 46%의 세율은 이들의 경쟁 능력과 이미 운

송 중이거나 계획된 배송에 대한 막대한 손실 우려를 제공한다.

4월 3일의 VASEP 예비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약 3만 7,500톤의 수산물이 미국으로 선적되고 있으며, 올해 4~5월에 3만 1,500톤이 추가로 수출될 예정이고 주문 체결된 양도 3만 8,500톤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금융 자산 위험 외에 어민 및 기업의 생계와 투자에 대한 위협을 제공한다.

미국 정책은 2025년 4월 5일부터 9일 사이에 선적 또는 수출되는 상품에 대해 10%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고 그 이후에는 46%의 가파른 세율을 적용한다. 중요한 점은 이 날짜 이전에 이미 운송 중인 상품에 대해서는 면세 혜택이 있다. 그러나 미국 세관이 출발일과 도착일 중 어느 쪽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지는 불확실하다. 4월 9일 이후에 도착할 경우 46%의 세금이 부과되면 이미 해상 운송 중인 화물은 이 엄청난 세금을 물게 되어 현재의 낮은 세율(0% 또는 반덤핑율 5.5~7%)을 기준으로 한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한 베트남 수출업체에 막대한 재정적 피해가 발생한다.

46%의 세율은 경쟁 수산물 수출국(인도: 26%, 에콰도르: 10%, 인도네시아: 32%, 태국: 36%)에 적용되는 세율보다 훨씬 높아 베트남의 가장 중요한 시장에서 경쟁력을 위협한다.

* 출처: Fishretail, 2025년 4월 8일자



그린피스, 美 송유관 반대 시위 관련 소송서 패소 환경 관련 운동에 영향 가능성 존재

최근 미국 노스다코타 배심원단은 그린피스가 2016년과 2017년에 다코타 액세스 송유관에 대한 반대 시위로 인하여 송유관 건설 기업인 에너지트랜스퍼파트너스(이하, ETP)사에 대해 6억 6,000만 달러 이상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다코타 액세스 송유관은 2014년 ETP사가 주도하여 건설을 제안한 송유관이다. 그러나 그린피스는 노스다코타 주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원주민 '수'족의 반대 시위에 동참하였다. 갈등이 격화되면서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은 송유관 건설을 일시 중단시켰으나,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건설이 재허가되었고, 2017년 완공되었다.

ETP사는 그린피스가 외부인에게 금전적 자금을 지원하여 시위에 동원하고 시위대를 조직적으로 훈

련시켰으며, 송유관과 관련하여 명예 훼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번 판결은 미국의 반기업 성향 비영리 단체의 미래에 대한 우려를 촉발하였다. 그린피스 미국 지부는 수년에 걸쳐 IUU 어업, 강제 노동, 조달의 투명성 부족과 같은 주요 문제로 참치 산업을 강력히 비판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또한 FIP를 통한 어업 개선 등에 업계와 협력하기도 하였다.

그린피스가 항소에서도 승소하지 못한다면, 그린피스 미국 지부와 펀드사와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그린피스 국제지부는 그린피스 1년 예산의 10배가 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이 때문에 항소에서도 패소 시 그린피스의 존립이 어려워질 수 있다.

* 출처: Atuna, CNN, 2025년 3월 20일자

2024년 수산물 어획, 양식, 소비량 정체된 어획량 대비 소비량 빠르게 증가

FAO는 세계 수산업 부문의 주요 지표인 어획량, 양식 및 1인당 수산물 소비에 대한 예비 데이터를 작성하였다.

〈정체된 어획량〉

세계 어획량은 9,000~9,200만 톤에 머물러 있다. 소비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면서 야생 어종(명태, 대구, 청어, 고등어, 연어류)에 대한 경쟁이 심화할 것이다.

〈전 세계 양식업 생산량, 1억 톤 돌파〉

세계 양식업 생산량은 5년간 19% 성장하였다.

2024년의 생산량은 1억 1,000만 톤을 넘어섰다.

세계 양식 생산량에서 러시아의 점유율은 약 0.4%로 지난 5년 동안 33% 성장하였다.

〈소비가 인구보다 빠르게 증가〉

전 세계 1인당 생선 소비량은 지난 4년간 연평균 1%씩 증가하여 2024년에는 연간 21.2kg에 달하였다. 세계 인구의 증가율(역시 연간 약 1%)을 고려하면 매년 세계 인구는 3~4백만 톤의 수산물이 추가로 필요로 하다.

※ 출처: Fishnet, 2025년 3월 31일자



한국, 노르웨이의 주요 수산물 시장으로 부상

지난해 대비 7% 증가

노르웨이수산물위원회(NSC)의 일본 및 한국 지역 책임자인 요한 크발하임은 3월 중순 FOODEX JAPAN에서 언더커런트 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대서양 연어에 대한 수요 급증에 힘입어 한국이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제치고 노르웨이 수산물의 주요 수출국으로 올라섰다고 말하였다.

NSC 데이터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에 대한 노르웨이 수산물 수출의 연평균 성장률은 금액 기준 17.3%로 일본의 5.2%를 훨씬 앞섰다. 한국은 세계에서 12번째로 큰 노르웨이 수산물 시장으로 성장했지만, 일본은 13번째로 하락하였다.

2024년 노르웨이의 한국 수산물 수출량은 전년 대비 7% 증가한 7만 7,427톤, 금액으로는 13% 증가한 52억 5,000만 크로네(4억 8,85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반면 일본으로의 수출량은 9만 3,239톤으로 9% 감소하였으며, 금액은 51억 2,400만 크로

네로 1% 증가에 그쳤다.

“3~6개월의 장기 계약을 선호하는 일본과 달리 한국은 보다 역동적인 현물 거래에 참여한다.”라고 크발하임은 덧붙였다.

대서양 연어의 단가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급등하였지만, 한국으로의 수출량은 2만 6,000톤에서 2만 8,000톤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크발하임은 한국 시장에서 노르웨이산 연어가 전체 공급량의 97%를 차지하는 등 칠레와 같은 경쟁국을 훨씬 앞서고 있다고 말하며, 소매업자는 노르웨이산 연어를 신뢰한다고 하였다.

한편, 냉동 고등어는 여전히 물량 기준 노르웨이로부터 가장 많이 수입되는 품목으로 전체의 56%를 차지하였으며, 2024년에는 전년 대비 3% 증가한 4만 3천 톤을 한국은 수입하였다.

* 출처: Fishnet, 2025년 3월 31일자

러·일, 일본 어민을 위한 연어 쿼터에 합의

러수역 조업 쿼터는 지속 협의 中

일본과 러시아 대표는 2025년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연어 어획 쿼터에 합의하였다.

일본측이 발표한 성명서는 3월 10일부터 13일까지 열린 협의 결과 양측이 전년도 수치에 해당하는 2,050톤의 할당량에 합의하였다고 알렸다. 이 수역에는 러시아 강에서 이동하는 물고기가 풍부하다. 또한 일본의 지급 금액은 2024년 수준인 1억 8천만 엔~3억 1천 3백만 엔(120만~210

만 달러)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2025년 러시아 연방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일본 어부의 연어 조업 할당량에 대한 협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양국은 1984년, 1985년에 체결한 협정에 따라 서로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하고 있으며, 매년 수산물 쿼터에 관련 협의를 진행한다.

※ 출처: Fishnet, 2025년 3월 14일자



유럽의회, 기니비사우와 새 어업 협정 승인 5년간 1억 유로 이상의 지원

유럽의회는 수요일 기니비사우와의 어업 협정 개정에 동의하여 향후 5년간 41척의 EU 선박이 기니비사우 해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새로운 협정에 따라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 포르투갈의 총 28척의 참치 선망 및 연승 어선과 13척의 참치 낚싯대 조업 어선이 기니비사우 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게 되었다. 유럽 어선은 2029년까지 매년 최대 3,500톤의 두족류와 3,700톤의 새우를 어획할 수 있다. 소형 원양 어종은 자원 상태와 낮은 소비율로 인하여 어획이 제한된다.

그 대가로 EU는 5년 동안 8,500만 유로의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연간 1,700만 유로로 구성되며, 기니비사우의 지속 가능한 수산업 관리를 촉진하고 지역 어촌계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450만 유로가 별도로 제공된다. 이는 이전 협약에 비해 연간 140만 유로가 증가한 금액이다.

EU의 기부금 외에도 선박 소유주는 기니비사우 정부에 허가 및 어획 수수료를 지급한다. 따라서 기니비사우에 대한 EU의 기여금은 5년 동안 1억 유로를 넘어설 것이다.

2024년 9월 18일부터 임시 적용된 새로운 의정서는 찬성 518표, 반대 104표, 기권 61표로 본회의에서 승인되었다.

〈지역 어업에 대한 지원 강화〉

찬성 605표, 반대 68표, 기권 10표로 유럽의회는 향후 협상과 현 의정서 적용 시 위원회와 기니비사우 당국이 고려해야 할 별도의 권고안을 승인하였다.

의회는 이번 협상이 지역 수산업 발전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를 원한다. 기니비사우의 인프라는 현지 어류의 시장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한다. 한편, 기니비사우가 수산물을 수출할 수 있도록 협력이 필요하다.

유럽의회는 “기니비사우가 편의치적 국가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라고 우려를 표명하였다. 그들은 선박 소유권에 대한 투명성 부족으로 인하여 IUU 어업 대응이 저지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유럽의회 의원은 EU가 어업 활동을 강화, 모니터링 및 IUU 어업 방지 등을 위한 기술 및 재정적 지원을 촉구하였다.

한편, EU의 기니비사우와의 협정은 관련 기금 측면에서 모리타니와의 협정에 이어 EU가 제3국과 맺은 두 번째로 중요한 수산 협정이다.

어업이 기니비사우 정부 수입의 15%를 차지하지만, 기니비사우는 EU의 보건 및 위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수산물을 EU로 수출할 수 없다. 기니비사우의 조업 수역에서 외국 선박이 어획한 어획량의 3%만이 기니비사우에 양륙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 출처: European Parliament, 2025년 4월 2일자



中 대형 남극크릴선 출항

남극 어획량 확대 목표

일본 홋카이도 기선련에 따르면, 중국 푸젠성 최초의 남극크릴 전용 어선이 지난 3월 10일 푸젠성 푸저우시 국가원양어업기지에서 출항하였다. 러시아의 연구기관에 따르면, 남극크릴 자원량은 1억 2,500만 톤으로 추산되며, 러시아에서 자원 이용에 나서고 있다. 중국도 근대적 어선을 도입하면서 어획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푸젠성의 크릴 어선 '福遠漁 9199'호는 전장 138.8미터, 총톤수 1만 6,000톤이다. 총투자액은 약 6억 위안(약 1,220억 원)으로 추정된다.

선상에는 연속 펌프를 이용한 어획 시스템이, 선내에는 전자동 크릴 제품 생산설비가 탑재되어 있다. 두께 1미터 이상의 얼음을 뚫고 항해하는 것이 가능

하며, 영하 25도 이하의 환경에서도 작업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홋카이도 기선련에 따르면, 크릴은 우수한 영양 특성이 확인되고 있어 통조림 제품에서 양식용 먹이까지 폭넓게 산업에서 활용되며, 특히 크릴 오일의 경우 건강식품으로도 수요가 있다.

러시아는 2021년 남극어업에 관한 계획을 승인하였다. 남극 크릴 어업의 부활을 목표로 내걸고 2024년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나섰다. 러시아 연방 수산청에 따르면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수역에서 2024년 크릴 어획량은 8만 3,000톤에 달했다.

* 출처: 미나토신문, 2025년 3월 19일자

영국과 페로 제도, 어류 쿼터 교환

2천여 톤의 해양수산자원 확보 및 양국 협력 기대

영국과 페로 제도가 2025년 쿼터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였다. 영국은 페로 수역에서 2,000톤 이상의 다양한 어종을 어획할 수 있게 되었다.

쿼터에는 대구와 해덕 880톤, 블루링 등 대구류 160톤, 사이테 575톤, 기타 약 500톤이라고 영국 정부는 알렸다.

페로는 영국 수역에서 넙치 700톤, 해덕 200톤, 블루링 250톤, 대구류 100톤, 기타 약 200톤을 어획할 수 있다.

6월에 페로 측은 할당량의 90% 이상을 어획하면 1,800톤까지 해덕 쿼터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영국도 추가쿼터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이 협정에는 과학 분야에서의 협력과 공동 규정 준수 포럼 설립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하여 양국은 어업 모니터링, 통제 및 감시의 모범 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다.

※ 출처: Fishnews, 2025년 3월 19일자



日 마루하니치로, 사명 '우미오스'로 변경

일상 식품으로 섭취하기에 너무 비싸져

일본 수산 대기업 마루하니치로는 2026년 3월부터 사명을 '우미오스(Umios)'로 변경할 예정이다. 지난 3월 24일 사명 변경 및 장기 비전에 대한 기자회견을 한 이케미 마사루 마루하니치로 사장은 "(새 사명) 진정한 솔루션 기업을 상징"하며, 또한 "새로운 기업 정체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결단하였다"라며 사명 변경의 이유를 밝혔다.

이케미 사장은 현재의 사업 과제로 '일본 시장의 축소', '천연 수산 자원의 감소', '비용 상승'의 3가지 지목을 하며, 종합 식품 기업으로서 음식을 제공한다는 관점만으로 과제 해결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백 년 후의 보다 좋은 미래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업 과제의 범위를 넘어 사회적 과제, 전 지구적 과제를 해결"하겠다고 결의를 표명하였다.

이케미 사장은 이날 발표한 신장기 비전이 "키워드는 가치 순환과 글로벌"이며, "가치 창조 모델을 더욱 진화시킨다"라고 말하였다. 마케팅에서 시작하는 가치 창조의 순환을 현지로 전개한다.

사장은 솔루션 기업으로서 '도전과 공동 창조'의 기업문화를 만들겠다는 결의도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다카나와 게이트웨이 시티'로 본사를 이전할 예정이라고 언급하였다.

* 출처: 미나토신문, 2025년 3월 26일자

아시아에서 노르웨이 고등어 가격 상승

일상 식품으로 섭취하기에 너무 비싸져

노르웨이 수산물위원회에 따르면 노르웨이는 2월에 1만 8,067톤, 5억 6,700만 크로네 상당의 고등어를 수출하였다. 수출액은 작년 같은 달에 비해 8,800만 크로네, 즉 18% 증가하였다. 하지만, 수출 물량은 11% 감소하였다. 2월 고등어의 가장 큰 시장은 한국, 베트남, 중국이었다.

노르웨이 고등어 수출은 공급이 제한적이지만 수요는 양호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따라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며, 2월에는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600g 미만의 고등어 평균 가격이 kg당 30 크로네를 넘어서었다. 노르웨이 수산물위원회의

원양어종 책임자인 얀 에이릭 존슨은 "전례가 없던 일"이라고 말하였다.

노르웨이 고등어 주요 시장인 일본과 한국에서는 이제 높은 가격이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었다.

"수입 노르웨이 고등어의 가격이 크게 올랐을 뿐만 아니라 현지 고등어는 어획량이 적고 크기가 작아 현지 소비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더 많이 올랐다."라고 노르웨이수산물위원회의 일본 및 한국 대표인 요한 크발하임은 말하였다.

* 출처: Dalekayaokraina, 2025년 3월 20일자



캐나다 WTO 무역 분쟁 제기

中 농산물에 추가 수입 관세 부과

캐나다가 최근 중국이 캐나다산 농수산물에 부과한 관세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무역 분쟁을 제기하였다고 WTO는 발표하였다. WTO는 “캐나다는 특정 캐나다 농수산물에 추가 수입 관세를 부과하는 중국 조치와 관련하여 중국에 WTO 분쟁 협의를 요청하였다”라고 밝혔다. 이달 초에 시행된 중국의 관세에는 캐나다 카놀라유, 완두콩, 오일케이크(동물 사료)에 대한 100% 추가 관세와 수산물에 대한 25% 관세 부과가 포함되어 있다. 중국 상무부는 조사 결과 캐나다 정책이 “공정한 무역 질서를 저해하고 중국기업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해쳤다”라고 주장하며 관세 부과를 정당화하였다.

WTO 분쟁 절차는 관련 당국 간 협의로 시작된다. 협의로 해결되지 않으면 캐나다는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 해결 패널 설립을 요청할 수 있다. 식용유, 동

물 사료, 바이오디젤에 사용되는 카놀라유의 선도적인 글로벌 생산국인 캐나다는 주요 수출 시장인 중국에 많은 양을 수출해 왔다. 캐나다 업계 관계자는 작년에도 캐나다 정부가 중국 제품에 대해 취한 관세 조사에 이어 이러한 관세의 영향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러한 무역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행한 새로운 미국 관세 조치로 캐나다, 중국, 미국 간 무역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발생하였다. 지난해 8월, 캐나다는 보조금을 받는 중국산 차량으로부터 북미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미국의 조치를 반영하여 중국산 전기차 수입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였고 캐나다는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 출처: 국제수산 월간동향, 2025년 3월 31일자

중국 바닷가재 시장 현황

캐나다는 점유율 하락, 베트남은 출하량 9배 증가

캐나다 바닷가재 산업은 관세 인상으로 인해 중국 내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는 등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미국,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등의 국가가 감소세를 상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중 베트남산 바닷가재는 저렴한 가격, 무역 협정, 지리적 이점 덕분에 대중국 수출이 9배나 크게 증가하였다.

중국의 호주산 바닷가재에 대한 무역 금지 조치

가 해제됨에 따라 중국으로의 수출이 회복되어 고급 시장에서 베트남산 바닷가재와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바닷가재 시장의 미래는 북미 국가가 관세 정책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베트남과 호주가 주요 공급업체로 부상하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 공급업체로 기울 것으로 예상된다.

* 출처: Dalekayaokraina, 2025년 3월 21일자



美, 초밥 어종 허위 표기 논란

美 뉴욕포스트 보도

전문가들은 초밥의 원료 표기가 실제와 다른 경우가 많으며, 특히 미국은 이런 허위 표기가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라고 경고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값싼 대체어종이 연어, 참치, 도미 및 기타 최고급 수산물로 잘못 표기되어 판매되고 있다. 비용 절감을 위해 만들어진 허위 표기품은 초밥을 제공한 후에는 허위 여부 판별이 매우 어렵다.

미국에서는 초밥과 회에 많이 사용되는 도미, 연어, 새우, 참치가 가장 흔하게 허위 표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초밥으로 인기가 높은 어종일수록 허위 표기 가능성이 높다.

2018년 연구에 따르면 미국과 캐나다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대체되는 생선은 도미이다.

전 세계에서 양식으로 사육되기 때문에 저렴하고 구하기 쉬운 틸라피아가 도미의 일반적 대체품이다.

참치 역시 허위 표기 빈도가 많았다. 2018년 조사에 따르면 유럽 6개국의 참치 샘플 545개 중 6.7%가

라벨에 표시된 것과 다른 어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밥용 생선으로 인기가 높고 고가인 대서양 참다랑어의 허위 표기율은 국가에 따라 100%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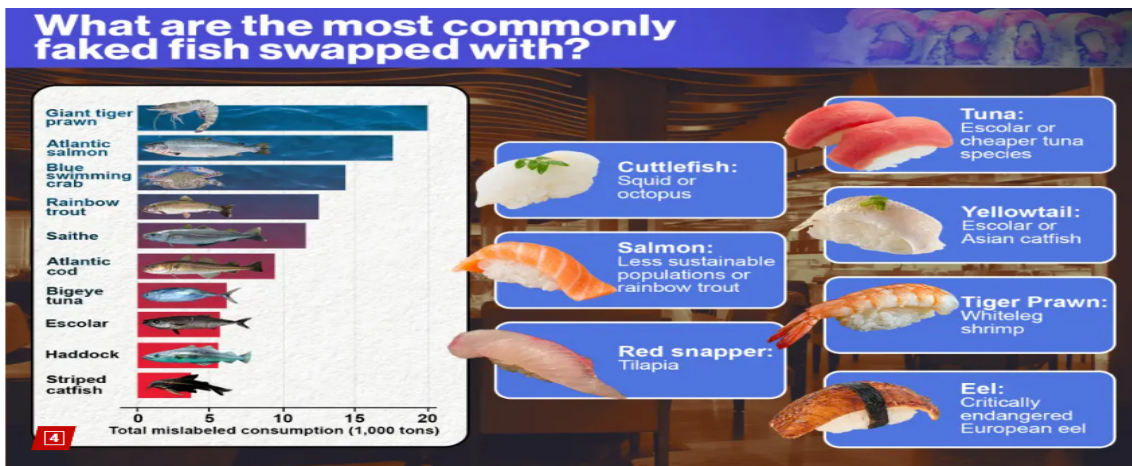
2020년 하버드 연구에 따르면 타이거 새우는 미국에서 가장 많이 허위 표기되는 수산물이었다.

2020년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두 번째로 많이 허위 표기되는 어종은 양식 대서양 연어로, 무지개송어가 허위 표기에 주로 이용되었다.

이러한 값싼 생선 대체 사용은 과거에도 대규모 식중독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덴마크 공과대학의 해양 생물학자이자 정책 전문가인 쿠사 박사는 “일반적으로 슈퍼마켓 체인에서 판매되고 어종, 어획 위치, 어획 장비 등이 표기된 라벨이 부착된 수산물을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라벨링이 부실하거나 어종이 표시되지 않은 제품은 피하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하였다.

* 출처: NewYork Post, 2025년 3월 17일자



(허위 표기되는 어종 순위 및 주로 사용되는 대체 어종)



트럼프의 관세가 연어 생산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 가격은 유지되며 업계도 적응

아틀란틱 사파이어(Atlantic Sapphire)의 공동 창업자 요한 안드레아센은 오늘날의 높은 비용과 금리 환경에서 육상 연어 양식의 경제성이 더 이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창업자는 수입 연어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관세가 미국 국내 생산에 새로운 압력을 가하는 가운데, 자본 비용과 이자율이 상승하는 현재의 글로벌 환경으로 인하여 미국 내 육상 연어 양식의 경제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경고하였다.

그는 SNS를 통하여 최근 발표된 미국의 관세(칠레산 연어에 10%, 노르웨이산 연어에 15%, EU산 연어에 20%)가 미국 국내 생산을 촉진하거나 소비자 가격을 급격히 인상할 가능성은 작다고 주장하였다.

대신 비용 부담은 주로 생산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그는 소매업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도매 수준에서 10%를 인상해도 소매시장에서는 5~8%만 인상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플로리다에서 육상 연어 양식을 개척한 그는 관세가 낮은 국가는 미국에 더 많이 판매하고, 관세가 높은 국가는 다른 시장으로 물량을 전환하며 업계는 적응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는 너무 많은 생산량이 미국을 떠날 경우 가격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였다.

* 출처: Fishnet, 2025년 4월 4일자

페루 남부, 10년 만에 가장 성공적인 어획 달성

페루 북부, 해양 온난화 우려

페루 생산부에 따르면 페루 남부에서의 2025년 멸치 어획이 긍정적인 결과를 이어가며 10년 만에 가장 성공적인 어획량을 기록하였다.

페루 남부 수역의 조업 기간은 1월에 시작되어 6월에 종료된다. 3월 31일까지 총 17만 6,226톤이 어획되어 할당된 킬터의 70.2%를 이미 어획하였다고 밝혔다.

페루 생산부는 멸치 어업의 회복은 지역 사회의 고용과 경제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과 기회를 제

공한다고 강조하였다.

업계에 따르면 25만 1,000톤의 남부 수역의 킬터가 어획되면 6만여 톤의 어분을 생산할 수 있다. 하지만 남부의 25만여 톤의 킬터는 200만 톤에 달하는 북부 수역에 비하면 매우 적은 양이다.

한편, 소식통에 따르면 페루 중북부 조업수역은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지만, 남부 수역은 약간 더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5년 4월 2일자



오징어의 꿈

양 주 현

하늘이 누구보다 자유롭게 살라고
뼈 하나 없는 몸을 만들어주었다.

사람이 뭐라고
뜨겁게
한번 말리고,
두 번 말리고,
세 번 말린다.

이제는 딱딱하다고
시리게
한번 불리고,
두 번 불리고,
세 번 불린다.

검은 바다가 그려진 비닐봉지 속에서 날카롭게
굳어버린 빨판만이 바스락거린다.





3월 오징어 국내 동향 전월 대비 수입량 52% 증가, 소비자가격 2%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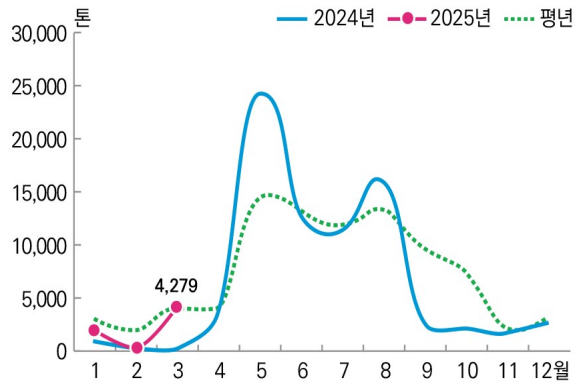
❖ 생산동향(3월 오징어 생산량, 원양산 반입으로 전월 대비 증가)

3월 오징어 생산량은 원양산 반입이 시작되며 전월 대비 증가한 4,279톤이었다. 반입이 없었던 작년보다 많았으나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연근해 생산량은 전월 대비 40.1% 감소한 121톤으로, 작년 대비 28.7% 많았고 평년보다는 90.4% 적었다.

수협별로는 통영 42톤, 기장 16톤, 여수 12톤 등 남해안 위주로 소량의 위판 실적이 있었다.

원양산 오징어 반입량은 4,158톤으로 평년 대비 40.1%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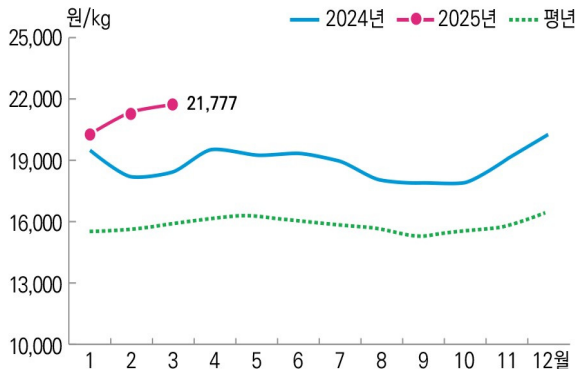


한편, 3월 원양오징어 어획량은 전월 1만 9,573톤 대비 41.1% 감소한 1만 1,525톤으로, 지난해 2만 5,022톤 및 평년 1만 8,678톤 대비 저조하였다.

❖ 가격동향(3월 냉동오징어 소비자가격, 전월 대비 2% 상승)

신선냉장 오징어 산지가격 및 도매가격은 각각 kg당 9,511원, 1만 9,332원으로 전월 대비 20% 전후의 상승세를 보였으며, 소비자가격은 kg당 2만 9,793원으로 1.8% 상승하였다.

냉동 오징어 도매가격은 kg당 1만 4,039원으로 전월과 비슷하였고, 소비자가격은 kg당 2만 1,777원으로 전월 대비 2.0% 상승하였다. 한편, 원양산 오징어 소비자가격은 전월 대비 3.9% 상승한 kg당 1만 5,170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4.6% 높았다.





❖ 수출입동향(3월 오징어 수출입량 전월 대비 증가)

3월 오징어 수출량은 전월 대비 28.6% 증가한 3,183톤으로, 작년 및 평년 동월보다 많았다.

국가별로는 중국으로의 수출량이 1,134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스페인으로 782톤, 태국으로 611톤 등이 수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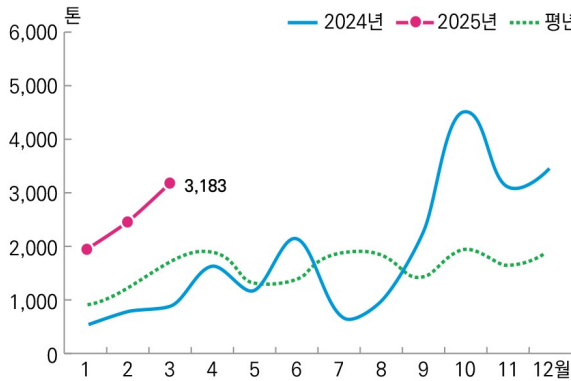
제품 형태별로는 냉동품이 2,845톤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기타(조제 또는 저장 처리) 203톤, 조미오징어 111톤 등의 순이었다.

3월 오징어 수입량은 전월 대비 52.0% 증가한 1만 6,855톤으로 작년 대비 6.8% 많았으나 평년 대비 16.8%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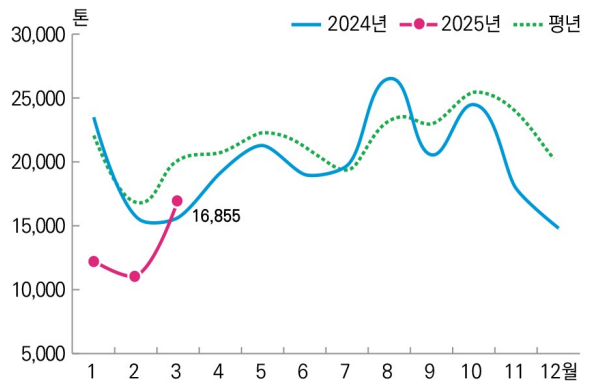
국가별로는 중국산이 1만 61톤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칠레산(2,437톤), 페루산(1,857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제품 형태별로는 냉동오징어가 8,495톤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기타(5,427톤), 조미오징어(2,534톤), 건조오징어(396톤) 등의 순이었다.

〈 오징어 수출량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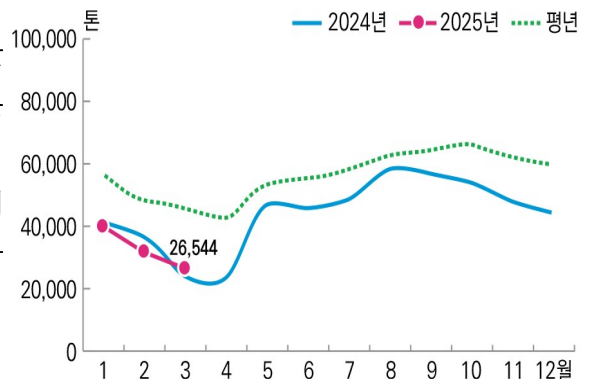
〈 오징어 수입량 추이 〉



❖ 재고동향(2월 오징어 재고량, 전월 대비 17% 감소)

3월 말 오징어 재고량은 전월 대비 17.1% 감소한 2만 6,544톤으로, 작년 동월 대비 9.4% 많았고 평년보다는 41.3% 적었다.

연근해산과 원양산은 6,802톤, 1만 9,742톤으로 전월 대비 각각 16.9%, 17.2% 감소하였으며, 작년보다 많고 평년보다는 적었다.



* 출처: KMI 수산관측 4월호



3월 명태 국내 동향

전월 대비 수입량 52% 증가, 수출량 4%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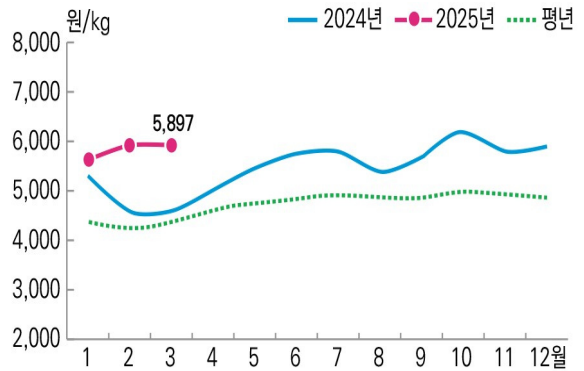
❖ 생산동향(휴어기)

원양트롤어업 휴어기로 원양명태 생산이 없으며, 2024년 어기 어획물 반입은 2024년 12월 27일 종료되었다.

❖ 가격동향(3월 냉동 명태 도매가격, 전월과 비슷한 kg당 2,409원)

3월 냉동 명태 도매가격은 전월과 비슷한 kg당 2,409원이었다. 그러나 최근 대구 등 흰살 생선 공급량 감소로 국제 명태 수요가 늘면서 전년 동월보다는 소폭 상승하였다.

냉동 명태 소비자가격은 kg당 5,897원으로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 해외동향

○ 러시아산 명태 및 대구 어획량 감소, 해외 시장 수출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최근 러시아의 수산물 어획량은 전년 대비 전반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2025년 2월 기준, 명태 어획량은 전년 대비 21.6% 감소하였으며, 대구는 47.3% 감소하는 등 주요 흰살생선 어획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2025년 2월 기준 러시아의 대구 및 명태의 수출가격은 각각 kg당 7.2달러, 1.4달러로 전월 대비 각각 24.1%, 13.8% 상승하였다.

흰살생선 가공업체들은 원재료 수급뿐 아니라, 물류비, 세금 등 제반 비용 상승으로 인해 수출 시장 위축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美 명태산업, 중국의 추가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경쟁력 약화 우려

알래스카산 수산물은 전체 생산량의 60% 이상이 수출에 의존하고 있어, 관세 변동에 민감한 영향을 받고 있다.

2018년 미·중 무역전쟁 이후 중국은 미국산 수산물에 최대 3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등 높은 관세 장벽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관세 정책 변화가 이어지고 있으며, 2025년 3월부터 추가 관세 부과가 예정되어 있어 미국산 수산물의 중국 수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이러한 높은 관세 장벽으로 인하여 알래스카 수산물의 중국 시장 내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명태 생산 및 가공업체는 수출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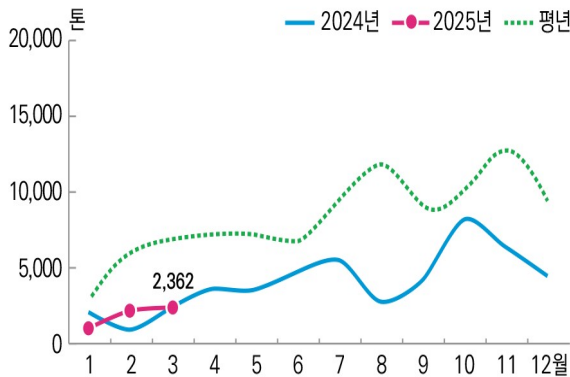


❖ 수출입동향(3월 명태 수입량, 전월 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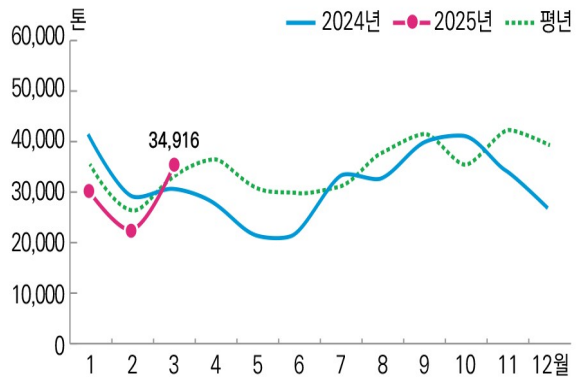
3월 명태 수출량은 2,362톤으로 전월 대비 4.0% 증가하였다. 그러나 작년 및 평년 대비 각각 9.8%, 66.4% 적었다. 국가와 제품 형태별로 보면, 냉동명태는 일본(312톤), 중국(243톤)으로 수출되었고, 냉동필렛은 말레이시아로 189톤, 냉동연육은 태국으로 1,151톤 거래되었다.

명태 수입량은 전월 대비 52.1% 증가한 3만 4,916톤이었다. 작년 및 평년에 비해서도 각각 16.0%, 2.9% 많은 양이었다. 국가와 제품 형태별로는 러시아산 냉동명태가 1만 6,977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러시아산 냉동연육(5,719톤), 미국산 냉동연육(2,013톤) 순이었다.

〈 명태 수출량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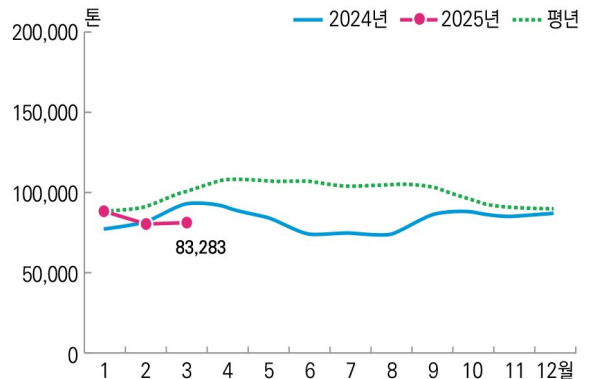
〈 명태 수입량 추이 〉



❖ 재고동향(3월 재고량, 전월 대비 증가)

3월 말 기준 명태 재고량은 8만 3,283톤으로 전월 대비 2.5% 증가하였다. 이는 반입은 종료되었으나, 수입이 늘었기 때문이다.

작년보다는 11.9% 적었으며, 평년보다는 16.9% 적었다.



* 출처: KMI 수산관측 4월호



발밑에서 차오른 대서양 바닷물에 북극해빙 녹아

대서양화 현상의 서북극해 확장 최초 확인

해양수산부는 '북극해 대서양화 현상'(이하 '대서양화')이 태평양과 닿아 있는 서북극해까지 깊숙이 확장되고 있음을 세계 최초로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대서양화(Atlantification)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대서양 바닷물의 북극해 유입이 늘면서, 따뜻하고 짠 대서양 해수의 특성이 더 확산하는 현상을 말한다. 대서양화가 진행되면 북극해의 수온과 염분이 높아지고, 열이 표층까지 도달하면 해빙을 녹일 수도 있다.

극지연구소 조경호·정진영·양은진 박사 연구팀은 미국 알래스카대 등과 함께 2017년부터 7년간 서북극해의 동시베리아해에 한국형 장기계류관측시스템을 운용해 대서양화 현상이 강화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대서양화의 영향을 받은 고온·고염의 바닷물은 상대적으로 밀도가 높아서 북극해 중층부에 위치하는데, 연구팀이 서북극해에서 관측한 고온·고염 바닷물

층 상단의 높이는 2000년대 초와 비교했을 때 약 20년 만에 90m가량 상승했다. 대서양화가 북극해 반대편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서북극해에서 연 단위 장기 관측을 통해 대서양화의 수직적 변화를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구팀에 따르면, 대서양화는 열과 함께 영양염을 표층으로 운반하면서 해양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영양염은 식물플랑크톤과 해빙 미세조류 등 표층에 서식하는 해양 일차생산자들의 먹이로, 대서양화로 표층에 영양염이 풍부해지면서 해양 표층 생물의 번성이나 해양 생산력 향상에 기여한 것이다.

이번 연구는 해양수산부의 '극지 해양환경 및 해저조사' 연구개발(R&D)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으며, 연구 결과는 국제적 학술지인 Science Advances에 2월 게재되었다.

日, 고등어 쿼터 감축 검토

최근 고등어 자원 급감 이유

일본은 고등어 자원 악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올해 쿼터를 대폭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수산청은 고등어의 올해 쿼터를 지난해 35만 3천 톤에서 80%를 감소한 6만 8천 톤 혹은 70%를 감소한 10만 9천톤으로 감소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를 시작하였다.

지난 2018년 54만 톤의 어획을 넘겼던 일본 연

안 고등어 어획량은 2023년 약 26만 톤을 어획하며 7년 만에 절반이 되었다.

일본의 올해 고등어 조업시기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이며 쿼터에 대한 검토를 거쳐 5월에 개최되는 수산 정책심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 출처: 오션21, 2025년 3월 26일자



원격의료, 원양 선원의 안전한 항해 도와 원양 어선 200척에 해양원격의료지원 서비스 제공

해양수산부는 원양선박에 근무하고 있는 선원에게 위성통신 등을 활용하여 원격의료를 제공하는 '해양 원격의료지원 사업'을 올해 200척의 선박(2025년 신규 20척), 4,500여 명의 원양선원을 대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원양 운항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은 근무 특성상 의료 서비스에 접근이 어려워 응급상황이나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 발생해도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악화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해양수산부는 2015년부터 부산대병원 해양의료연구센터와 함께 '해양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동 사업은 원격의료장비가 설치된 선박과

해양의료센터(부산대병원)를 위성통신으로 연결하여 선원의 건강관리와 응급상황 대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80척의 선박을 대상으로 2만 4,026건(응급·처치 지도 1,215건, 건강상담 2만 2,811건)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고, 10년간(2015년~2024년) 총 10만 9,312건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원양 운항선박 내 응급 의료 상황 발생 시 지체없이 신속하게 치료함으로써 선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기적인 건강상담을 통하여 의료복지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선원의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하였다.

정부, 북태평양·베링해 출어 원양어선 안전 살피 봉수망, 트롤, 저연승 원양어선 대상으로 실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3월 31일부터 7월31일까지 원양어선의 안전 조업을 위해 감천항 등에서 노후 원양어선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안전 점검을 진행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부산해수청을 비롯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선급, 한국원양산업협회 등이 참여하며 북태평양과 베링해에 출어하는 봉수망 4척, 트롤 3척, 저연승 2척 등 총 9척의 원양어선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특히 기관실 화재 발생 시 화재가 타 구역으로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의 사용 숙지 상태와 비상 퇴선 시 선원이 차가운 바다로 뛰어드는 상황을 고려한 방수복 보관 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안희영 부산해수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해양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북태평양과 베링해에서 조업하는 우리 원양어선 선원들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하였다.



K푸드 글로벌 장기흥행 전략 지속가능한 K푸드 성공 스토리 만들기

K푸드의 세계적 인기는 이제 단순한 유행이 아니다. OTT와 SNS를 통한 한류 문화의 확산과 함께 독창적인 맛, 건강한 이미지, 그리고 푸드테크의 발전이 결합하면서 K푸드는 전 세계 소비자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었다. 하지만 지속가능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철저한 현지화 전략,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 푸드테크와의 융합 그리고 상품 인지도를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수적이다.

K푸드는 한국적인 맛과 조리법을 기반으로 하지만, 세계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생존하려면 각 지역 소비자의 기호를 고려한 맞춤형 접근과 강력한 브랜드 전략이 필수적이다. 소비자들은 단순히 한국 음식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국의 브랜드를 통하여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고 감성을 공유하기를 원한다.

K푸드가 세계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식품과 식자재를 필두로 한 한국 식문화에 대한 미디어화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미디어화는 미디어가 사회와 문화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대함에 따라, 브랜드와 소비자 간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변화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는 푸드 브랜딩에서도 중요한 전략적 요소로 작용한다.

디지털 미디어와 소셜 플랫폼의 발전은 음식이 단순한 소비 대상에서 하나의 문화적 콘텐츠로 전환하는 과정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브랜드의 스토리텔링, 감성적 연출, 사용자 참여형 콘텐츠를 활용하여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고 있다.

K푸드 브랜드는 한류 콘텐츠와 연계된 미디어 전략을 통하여 글로벌 소비자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가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의 브랜드 경험을 확대하고 충성도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실시간 방송 판매를 활용한 김치 담그기 체험 방송은 중국 시장에서 1억 뷰를 기록하며 큰 성공을 거두었다. 또한 SNS에서 소비자가 직접 K푸드를 활용한 레시피를 공유하는 것도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효과적인 전략이 된다.

오늘날 소비자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된 제품을 선호한다.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이 글로벌 이슈로 대두되면서 K푸드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되고 유통되어야 소비자 신뢰도를 높여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

※ 출처: 세계식품과 농수산(FAO), 2025년 3월 5일자



러 명태 쿼터 23만 톤 증가

어획량 18만 톤 증가 예상

올해 러시아의 명태 쿼터는 7%인 16만 톤을 증가하여 246만 1천톤을 설정하였고 미국은 5%인 6만 9,800톤을 증가하여 151만 9,200톤으로 설정함으로 전세계 명태 쿼터량은 총 397만 9,200톤이 되었다.

이에 따라 최근의 어획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세계 명태 어획량은 최대 356만 톤에 달하여 지난해보다 18만 톤 정도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명태의 국제 시세는 지난해에 이어 감소할 전망이 강하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 명태 제품의 평균 수출가격은 kg당 2.84달러로 2023년의 kg당 3.08달러보다 7.6% 감소하였다.

최대 수출품목인 명태 연육과 필렛 제품의 가격이

10% 이상 감소한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

지난해 러시아의 명태 수출가격은 2017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유럽으로 수출된 러시아산 명태 필렛 제품의 가격은 40% 이상 하락하였고, 중국향 냉동 명태도 25% 감소하였다. 또한 일본으로 수출된 연육은 21% 감소, 필렛은 18% 가격 감소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명태 수출가격도 2023년 kg당 1.73 달러에서 지난해 1.57달러로 10% 정도 감소하였다.

명태의 국제 시세 감소의 주요인은 러시아의 명태 어획량 및 가공 제품 생산량 증가, 러시아 수산물에 대한 제재 강화, 명태에 대한 수요 감소 등이 있다.

* 출처: 오션21, 2025년 3월 26일자

日, 2025년 오징어 쿼터 76% 감소

1만 9,200톤으로 내년 3월까지 적용

일본이 오징어의 어획쿼터를 대폭 감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수산청은 최근 수산정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오징어의 2025년 어획쿼터를 지난해의 7만 9,200톤보다 76% 감소한 1만 9,200톤으로 설정하였다. 이 쿼터의 적용 기간은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1년간이다.

일본 연안의 오징어 산란 자원량은 최근 들어 급격히 감소하여 어획쿼터를 비교할 수 있는

1998년 이후 최소 수준이 되었다.

오징어의 연간 어획량은 2000년에 30만 톤을 웃돌았으나 2018년 이후에는 5만 톤을 밑돌기 시작하였으며, 최근에는 더욱 감소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방어에 대한 어획쿼터를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2025년 어획쿼터는 10만 1천톤으로 적용 기간은 4월부터 내년 3월까지와 7월부터 6월까지의 두 가지로 나누었다.

* 출처: 오션21, 2025년 3월 26일자



신통상규범 확대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 필요

수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선제적인 준비 필요

우리나라의 수산물 생산량은 정체되고 있지만 수입량은 증가하고 있다. 이는 현재 수산물 공급에 있어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2022년 기준 수산물 자급률이 52.1%로 과거 대비 상당 부분 감소하였다.

신통상규범이 확대됨에 따라 수산보조금 및 강제·의무 노동의 금지 내용으로 기존에 지급되던 보조금이 금지되거나 규범 준수를 위하여 추가적인 비용이 부담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연료비 및 인건비에 해당하여 어업 경영의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만약 환경 규범 준수에 따라 면세유(유류보조금)가 수산보조금 금지 의무에 해당하면 어업경영체 입장에서 평균 24.5%의 비용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근해어업 경영체의 유류비 항목의 전체 비용 비중과 유사하다.

또한 노동 규범 준수를 위해 선원 임금, 후생비, 공제 및 보험료에 대한 비용이 증가하여 그 수준은 평균 21.1% 증가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해양포유류에 대한 어업 관리를 위하여 혼획 저감 장치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과 연구 그리고 별도의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이에 국제적 동향 파악과 정확한 영향 분석을 통하여 국내 수산업에 주는 영향을 분석하고 선제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국내 법률과 제도를 국제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제 수산규범 강화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 수산정책 이행에 통합적인 대응체계 구축 및 수산 전문가 역량 강화가 요구된다.

* 출처: 신통상규범 확대에 따른 수산분야 영향 및 대응방안, 2024년 12월 31일자

대체 식품으로 부상하는 곤충산업

분말 형태 곤충 단백질은 실온에서 장기간 보관 가능

최근 식품공학 및 가공 기술 발달과 영양적, 환경적 이점 등으로 곤충 식품산업이 주목받고 있다.

곤충의 약 2천 종이 식용으로 소비되고 있으며, 동물성 단백질을 대체하는 식품으로 다음과 같은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포함하는 완전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식물성 단백질의 경우 불완전 단백질을 제공함에 여러 식물성 단백질을 보충해야

하지만 곤충 단백질은 전통적인 동물성 단백질을 온전히 대체한다.

생산에 필요한 사료나 토지, 물, 사육 공간 등의 소비가 극히 적어 지속가능한 식량자원이 되고 있다. 육류 1kg 생산에 2,850g의 온실가스가 생성되지만, 곤충 1kg 생산에는 1g의 온실가스만 생성된다.

* 출처: 세계식품과 농수산(FAO), 2025년 3월 5일자